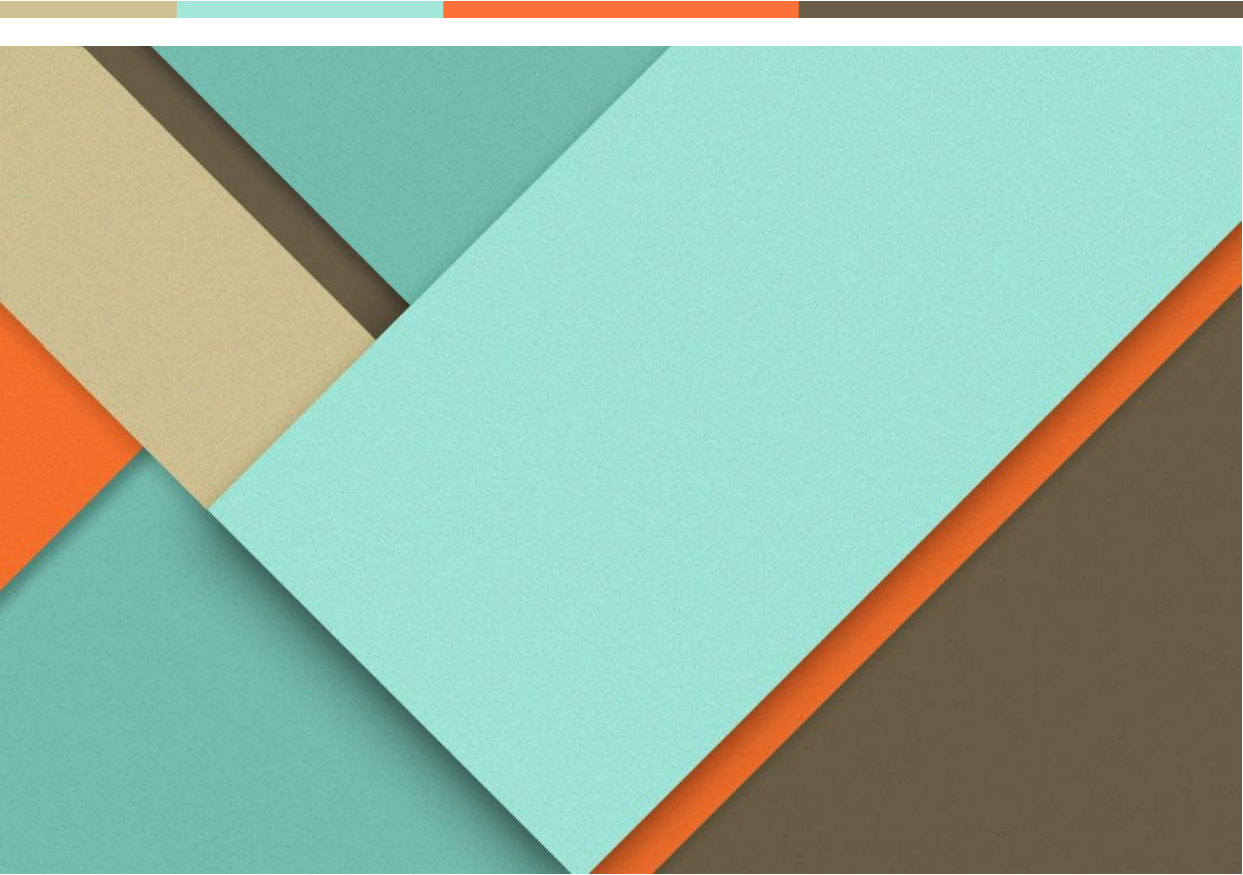




2023 1학기 설문조사 응답 결과(원광대)

— 5월 22일-26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문서 설명

예1(3p): 47명 참여.

예2(11p): 53명 참여.

본1(25p): 65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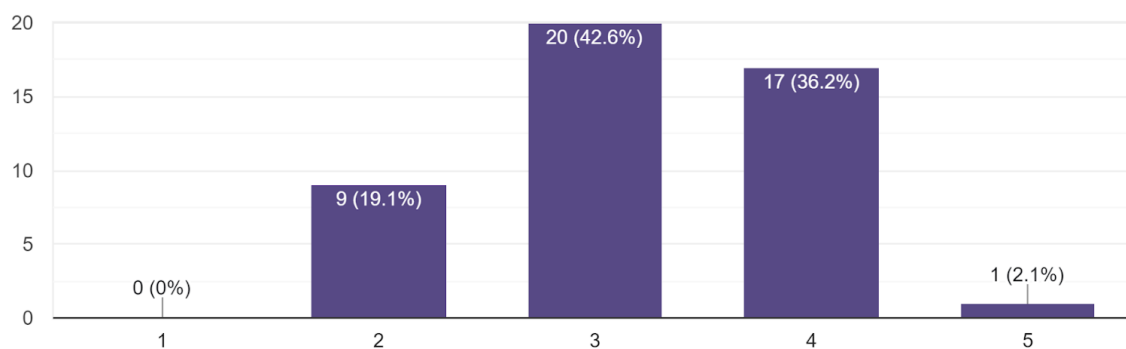
본2(36p): 33명 참여.

2023 예과 1학년

교육과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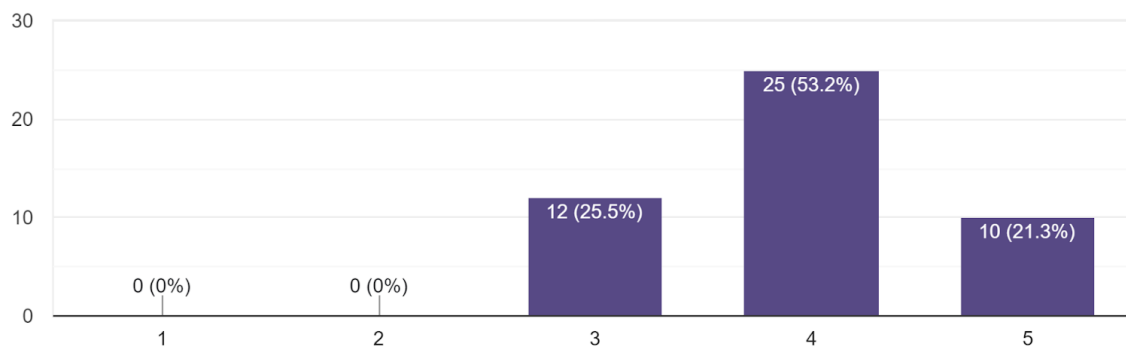
1. 예과 1학년 과목들의 구체적인 수업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응답 47개



2-1. 예과 1학년 과목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응답 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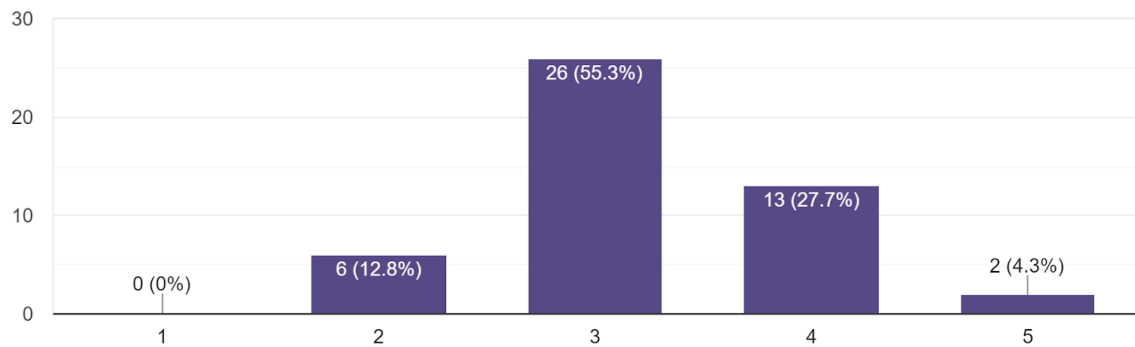
2-2. 어느 과목이 강의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에서 1이나 2를 고른 경우)

없어용

.

3-1.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과목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응답 47개



3-2. 어느 과목 간 중복이 가장 심합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에서 4~5를 고른 경우)

한의학기초이론-한의학개론

한의학기초이론 - 한의학개론

한의학개론-한의학기초이론

한개론 한기론/경혈 내용

한의학기초이론 - 한의학 개론

한의학개론-한의학기초이론 , 중복이 심하진 않습니다

한기론 한개론

한의학기초이론/한의학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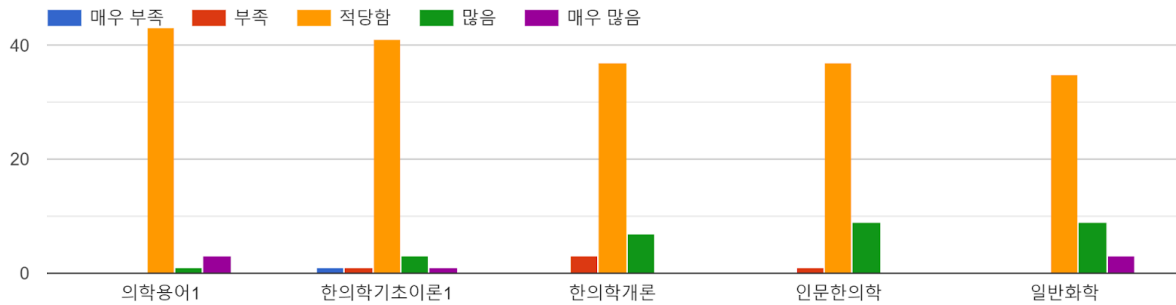
한의학개론과 한의학기초이론

한의학기초이론-한의학개론(경혈)-인문한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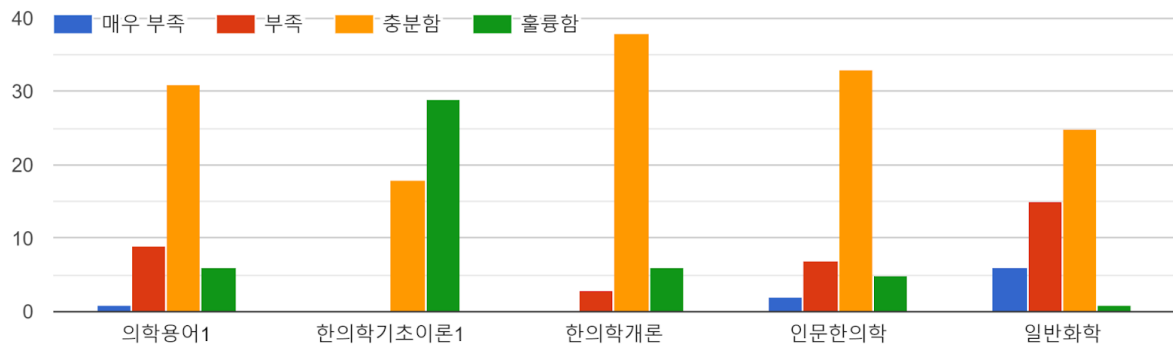
정리: 한의학기초이론-한의학개론 중복.

교육과정 2

1. 다음 각 과목의 한 주당 수업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량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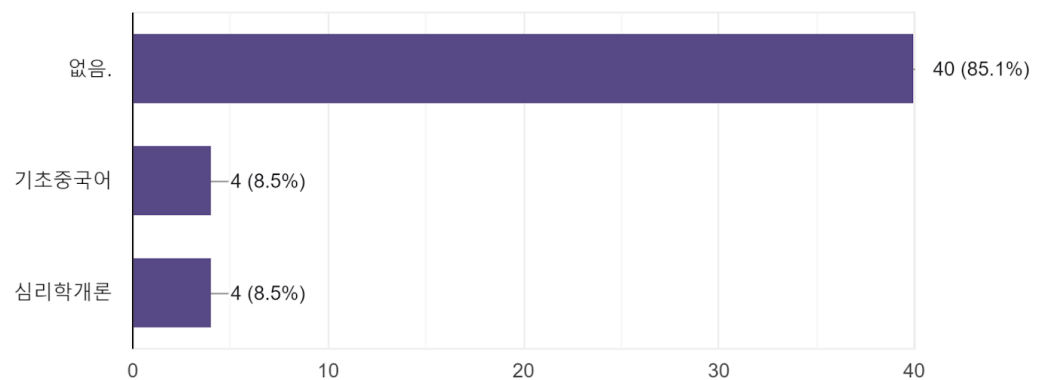


2. 다음 각 과목의 강의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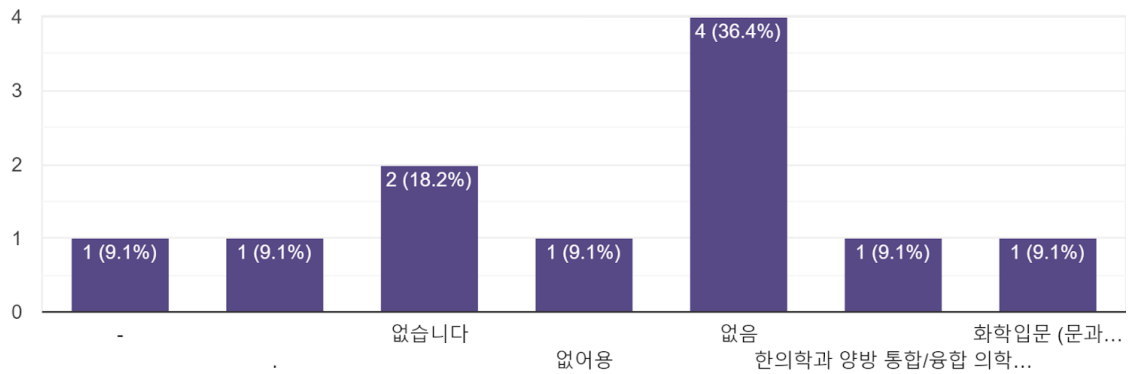
3. 전선 중 전필이 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 47개



4. 개설되었으면 하는 전선 과목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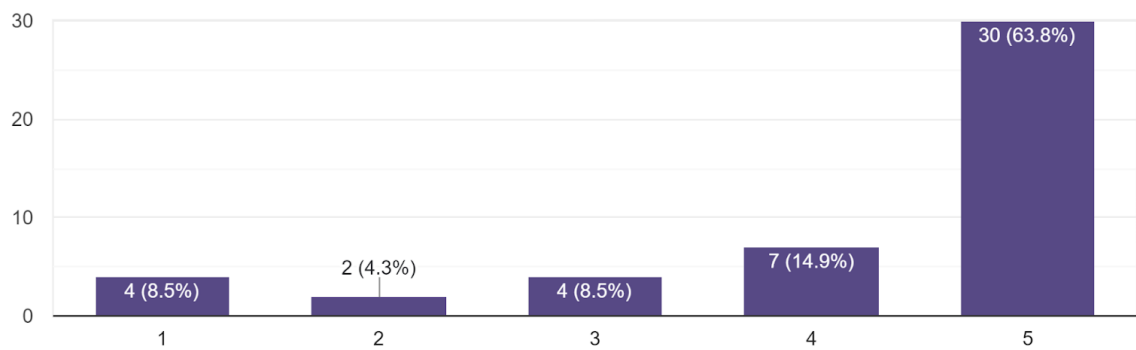
응답 11개



교육과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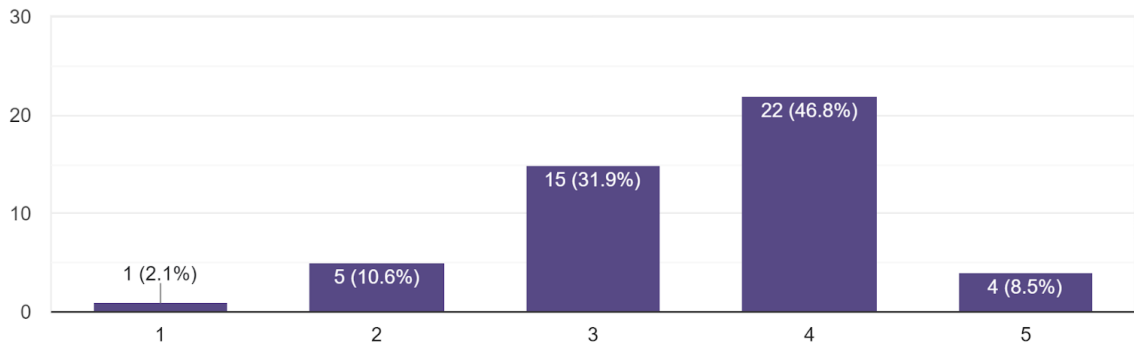
1. 인문한의학은 현재 상대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f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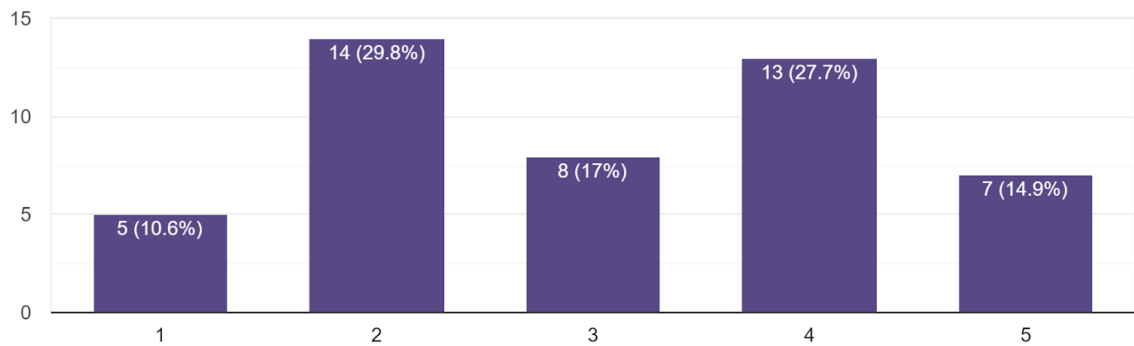
2. 한기론과 한개론 내용 중복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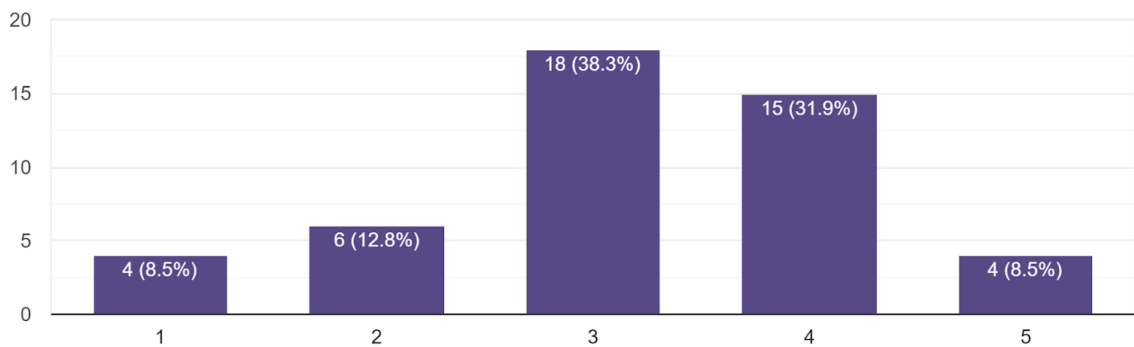
3. 한의학개론은 예과 1-1 때만 진행되는 과목입니다. 예과 1-2 때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1년 동안 진행)

응답 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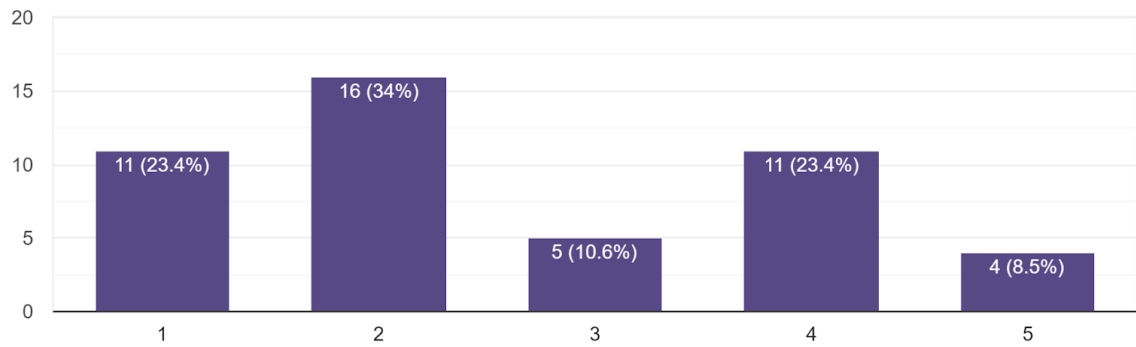
4. 과거 한의학 용어나 문장을 풀이하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위 과목의 재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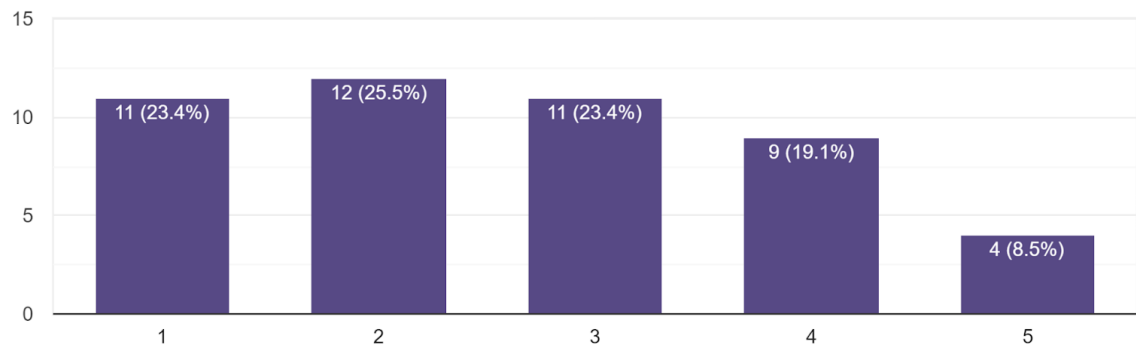
5. 현재 일반화학은 1학기, 일반생물학은 2학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과목을 합쳐 1년 동안 진행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과목 1시간씩, 1년 동안 진행)

응답 47개



6. 한의대는 수업시수와 학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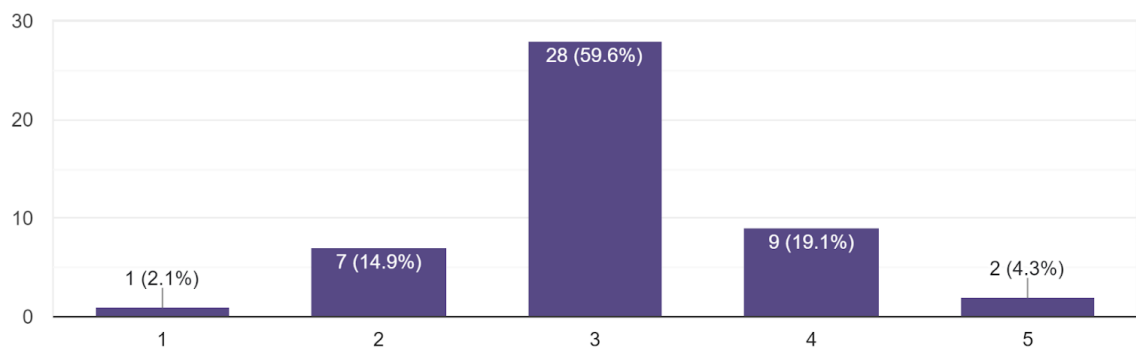
응답 47개



교육과정 협의

1.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7개



2.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학점시수통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음

임상시수를 위해서 기본과목이 필요이상으로 희생되고 한의학에 흥미를 지닐수있는 과목이 필요

임상 중심으로 개편되어야한다거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편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본초학, 임상의학, 양방 과목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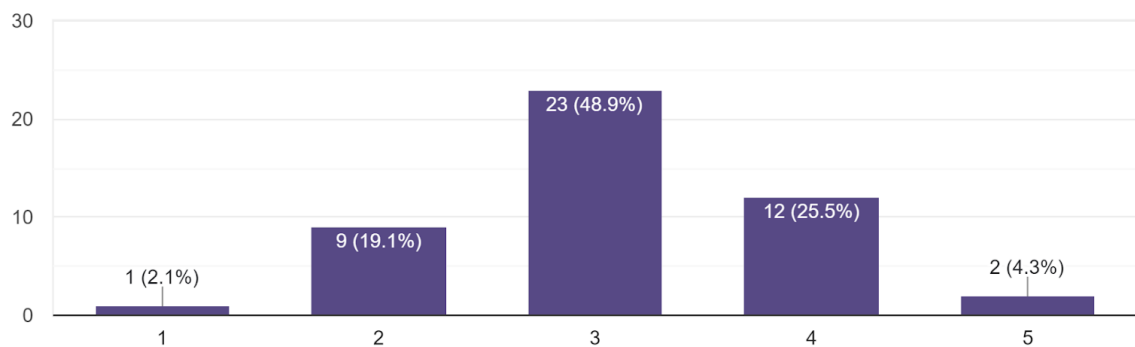
예과생들이 한의학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을만한 교육과정 조정 필요. 단지 추상적인 한의학 개념들을 공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실제 임상 사례를 가져와서 한의학적 개념이 어떻게 임상에서 적용되는지 초심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로써 한의학의 실용성을 일깨운다. 자신이 배우는 학문이 추상적이거나 이해가 안되어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2 과목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들었는데 분담할 수 없나요..?ㅠㅠ 학년 올라가기 무섭네요...

정리: 한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 필요. 예과 2학년에 편중된 과목 밸런스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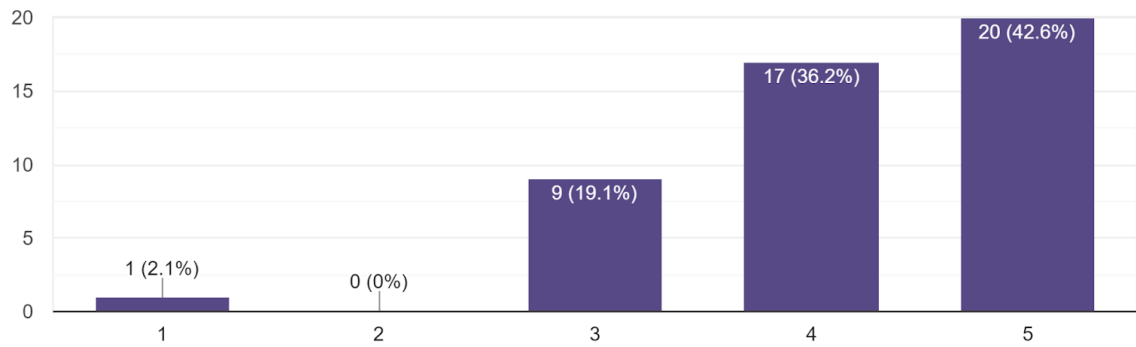
3. KAS 2022에서는 한방생리학 과목이 예과 2학년으로 이전되고, 본초학의 시수가 1시간 단축됩니다. 이러한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47개



4. KAS 2022는 한의학에 대한 임상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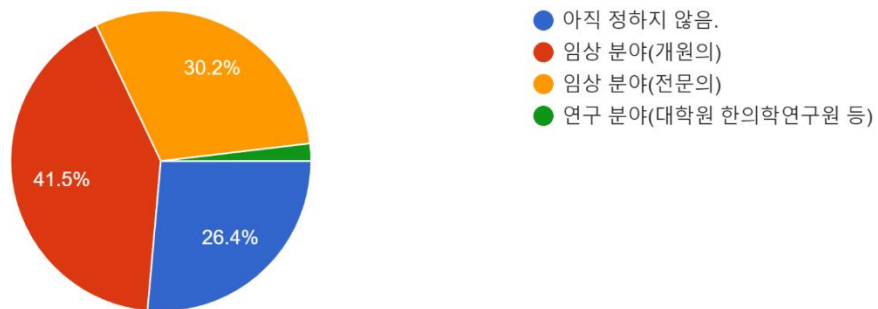
2023 예과 2학년

기본사항

문1. 현재 자신이 원하는 졸업 후 진로는 어떠합니까?

1. 현재 자신이 원하는 졸업 후 진로는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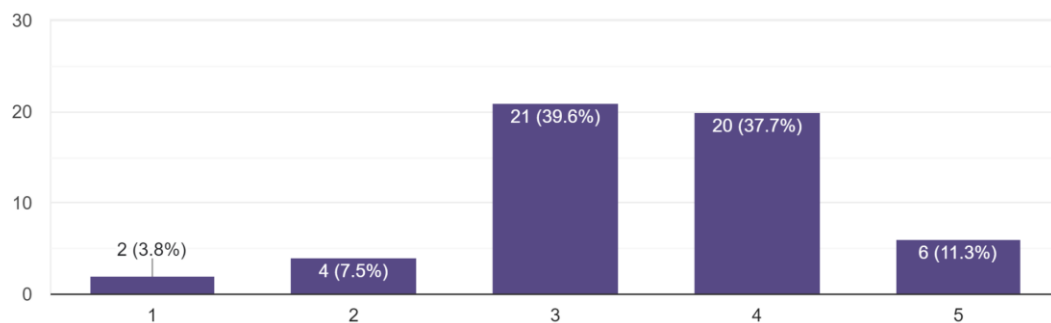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2. 귀하는 한의학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있습니까?

2. 귀하는 한의학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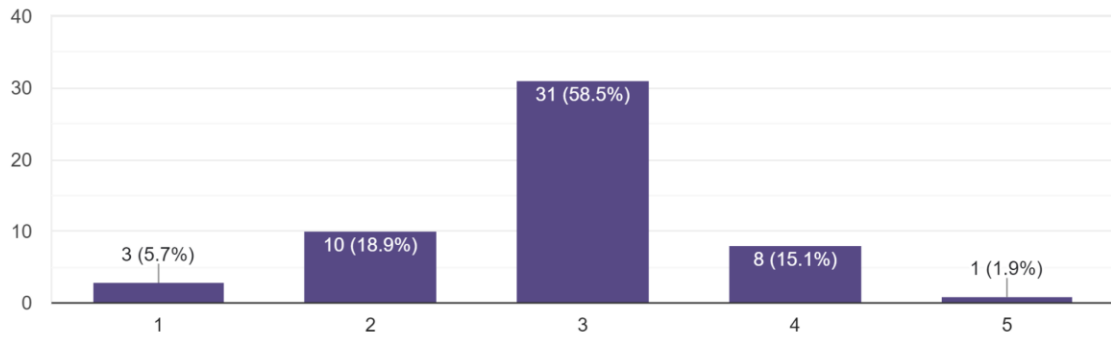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3. 귀하는 한의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한의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 responses



문4. 한의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4. 한의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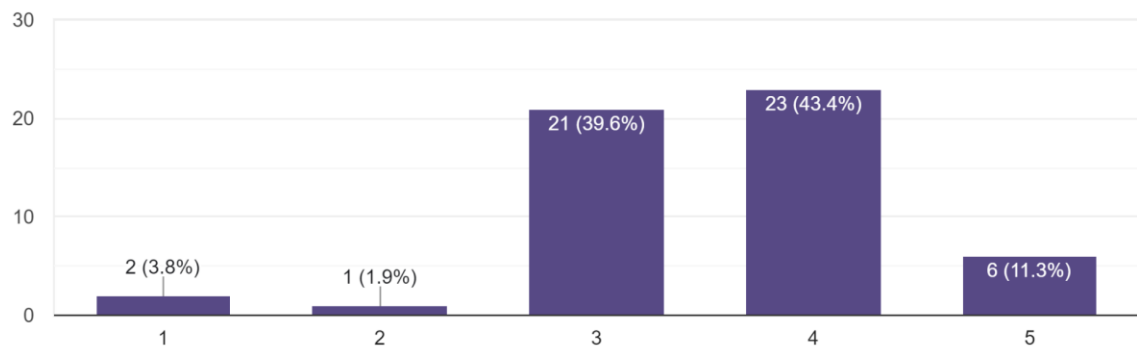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5. 한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할 때, 기존의 학교 수업이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한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할 때, 기존의 학교 수업이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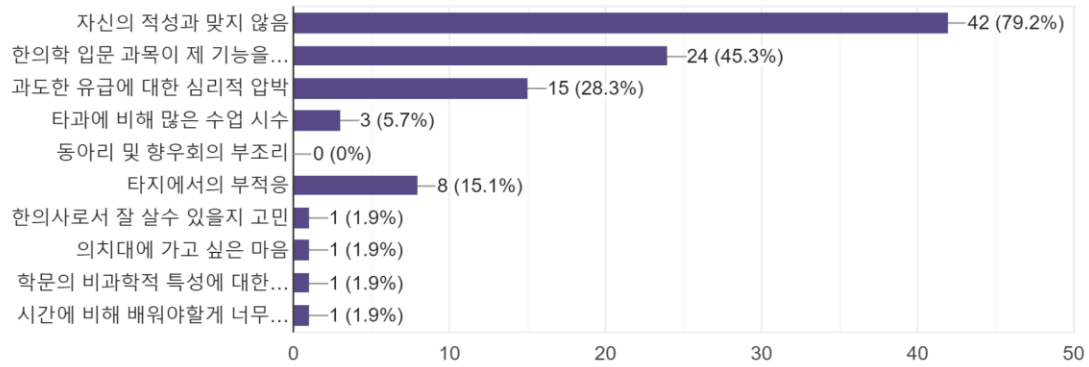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6. 예과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예과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3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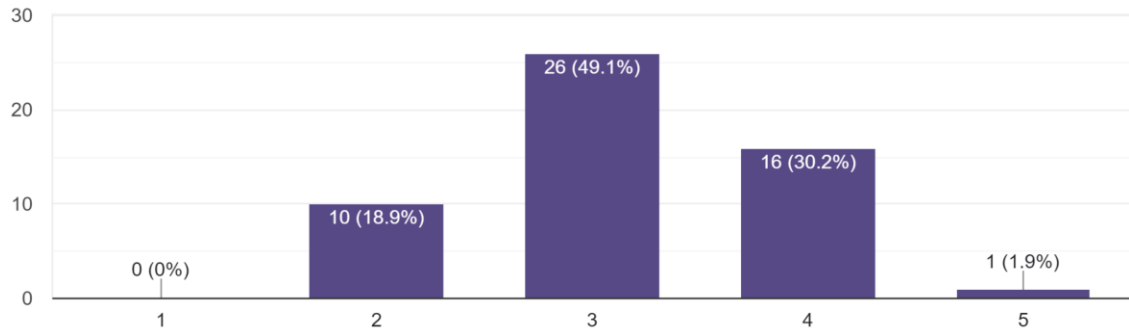


교육과정 설문 1

문1. 예과 2학년 과목들의 구체적인 수업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예과 2학년 과목들의 구체적인 수업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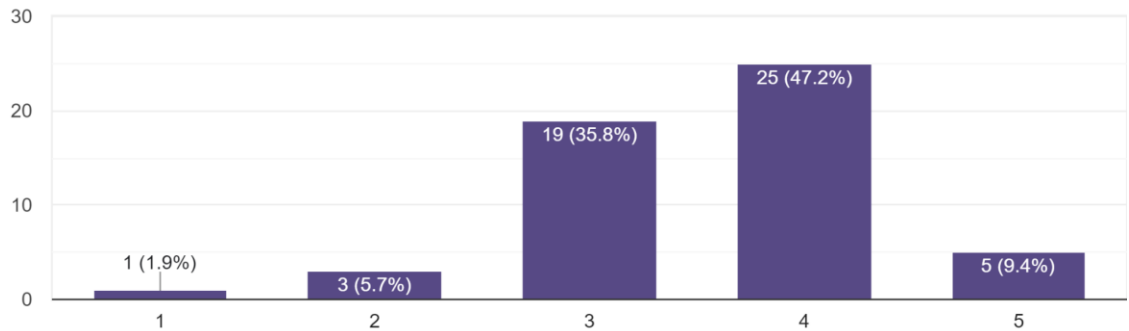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2-1. 예과 2학년 과목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2-1. 예과 2학년 과목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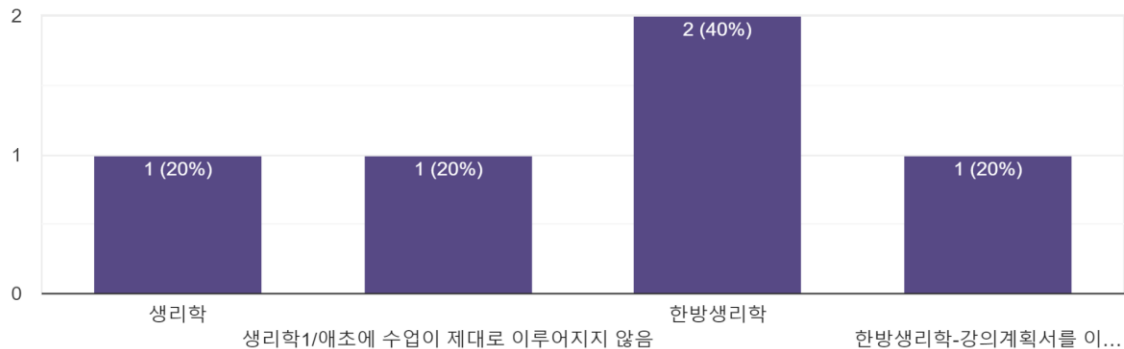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2-2. 어느 과목이 강의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에서 1이나 2를 고른 경우) [응답 표본 : 5명]

2-2. 어느 과목이 강의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에서 1이나 2를 고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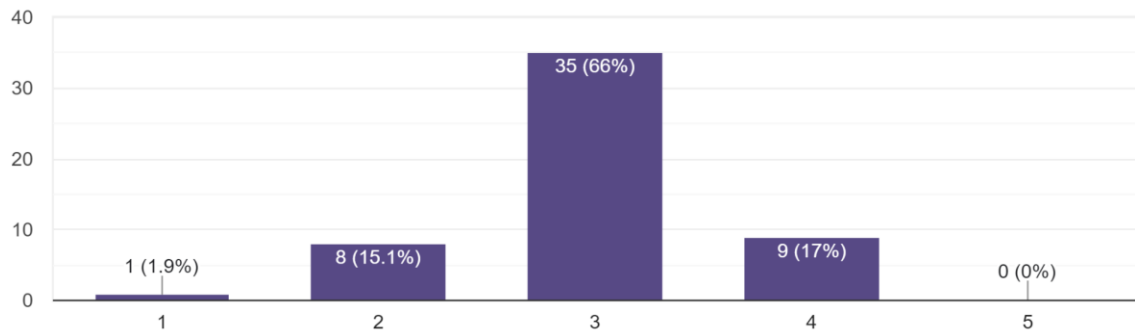
5 responses



문3-1.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과목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3-1.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과목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53 responses



문3-2. 어느 과목 간 중복이 가장 심합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에서 4~5를 고른 경우) [응답 표본 : 8명]

답1. 한방생리 한개론 등등

답2. 한의학기초이론-한의학개론

답3. 한의학기초이론-원전학, 본초학

답4. 생리학-원전학, 한의학기초이론-의철학

답5. 중복은 있었으나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함

답6. 의철학-원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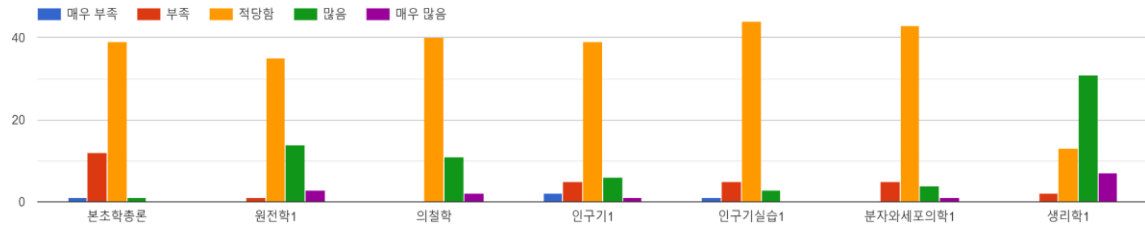
답7. 화학, 양방생리학

답8. 원전학과 의철학이 사실상 같은 내용 (황제내경)을 수업하는 중임.

교육과정 설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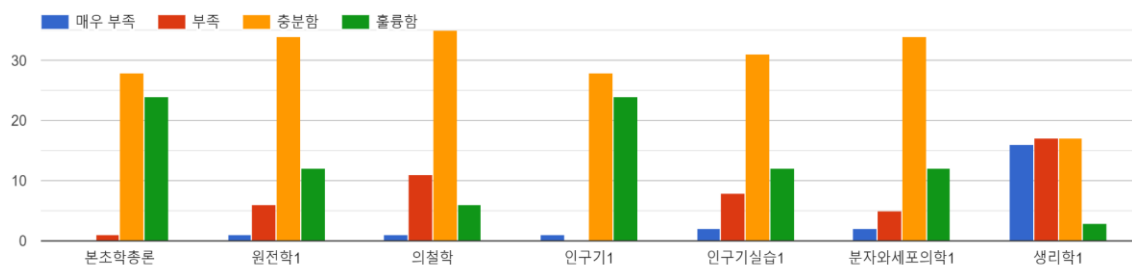
문1. 다음 각 과목의 한 주당 수업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량도 포함)

1. 다음 각 과목의 한 주당 수업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량도 포함)



문2. 다음 각 과목의 강의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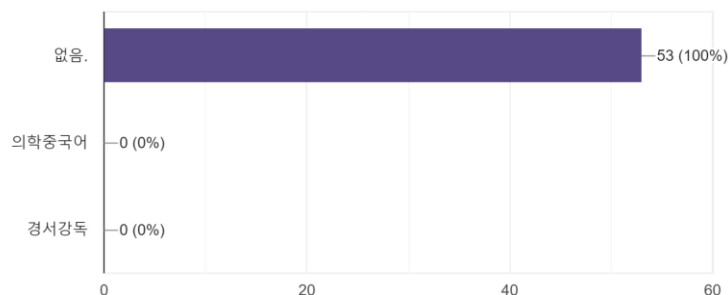
2. 다음 각 과목의 강의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 전선 중 전필이 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3. 전선 중 전필이 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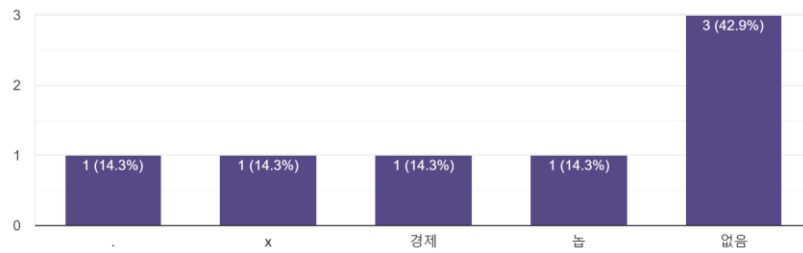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4. 개설되었으면 하는 전선 과목이 있습니까? [응답 표본 : 7명]

4. 개설되었으면 하는 전선 과목이 있습니까?

7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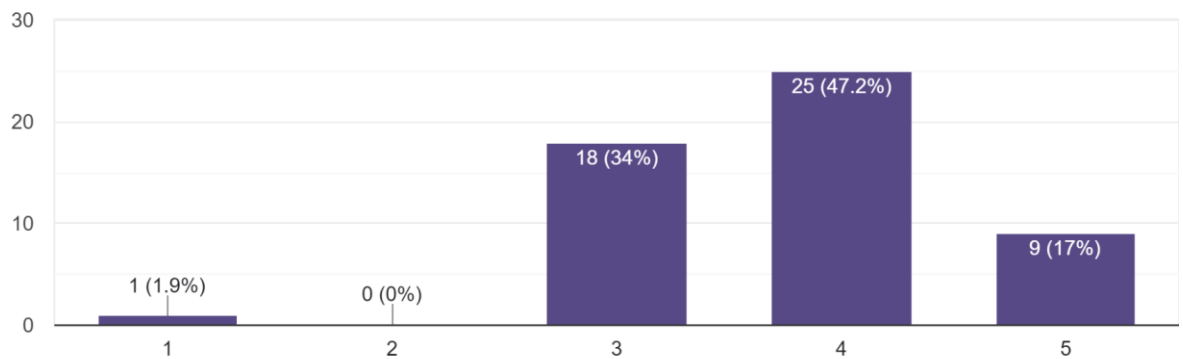


교육과정 설문 3

문1. 인구기 수업의 전문성 및 진행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인구기 수업의 전문성 및 진행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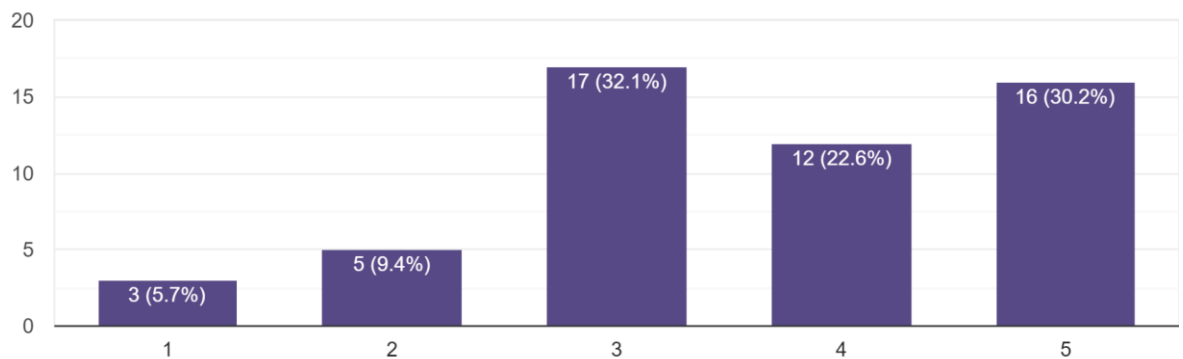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2. 의철학은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의철학은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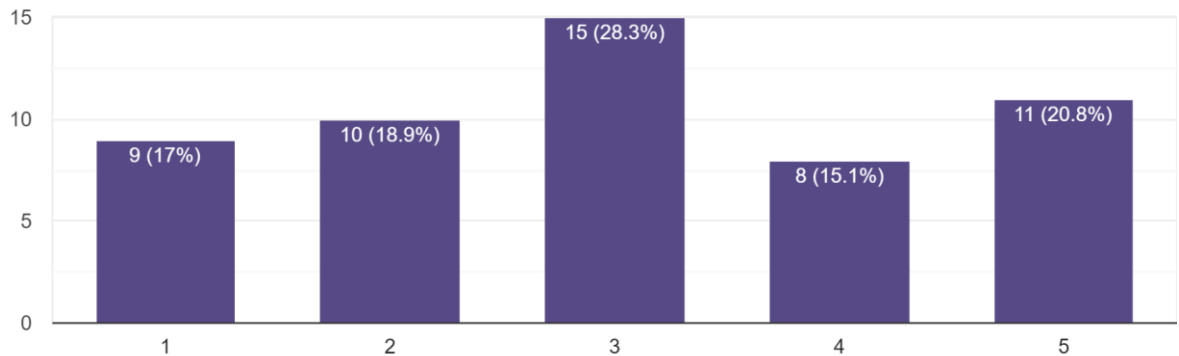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3. 분자와세포의학은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분자와세포의학은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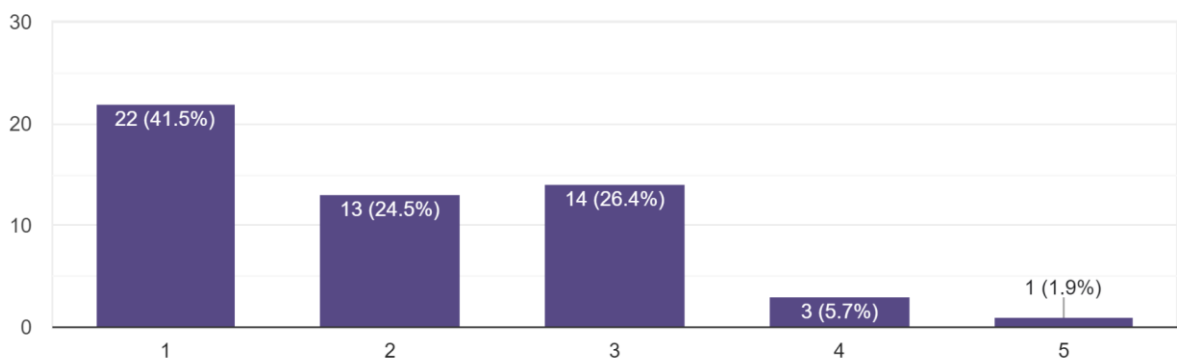
53 responses



문4. 현재 생리학1은 외부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현재 생리학1은 외부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 responses



문5. 외부강사의 수업 진행 방식 중 지양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없음 / 딱히 없음 / 없습니다

과도한 과제

모두가 공감할만한 자료를 사용했으면한다(개인 논문같은 건 조금...)

조별과제

과도한 방향성 추구

수업 취지와 다른 이야기

매주 과제..

김00 교수님.....

기존 학교 교수님들과의 강의 방식이 너무 다름(처음에 기본적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없어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수업방식 비교적 통일화가 필요, 현재 상태도 충분히 잘 이행

매주 과제 하는 것

수업 좋아용

교수님이 많고 깊이가 다른것같다

과제 내용이 수업과 무관한 것

강의의 체계가 부족한 것,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하지 않는 것

자기자신의 주관에 대한 강력한 피력

수업 내용에 관련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

수업이 체계가 없음

과제에 대해 제대로 될 설명이 이루어져야한다

초반에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 명확한 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수업 내용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년에 맞지 않는 수업을 진행한다. 지나친 과제와 급작스러운 조별과제, 평가방법 미공지 등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 바라지 않고 정말로 이전 교수님처럼만이라도 한방생리학을 가르쳐주시기만 해도

감사함

체계가 부족함

좀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계획과 수업자료에 맞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고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수업 자료 및 범위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채택하였으면 그것에 맞는 강의내용을 펼치는 것이교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교과서에 대한 학습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 그것도 아직 예과생에게만 맡겨놓고 수업시간은 또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의 학습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수 본인의 수업 구성 내용 및 수업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과제를 매수업마다 계속 내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생에게 자율학습을 맡겨선 안됨.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함.

수업에 체계가없고 즉흥적으로 진행되어 짜임새가 부족합니다

교수에 따라 강의 내용이 너무 달라지는 것

체계성 없는 수업

과도한 부담

수업시간중 대다수가 수업과 결이다른 여담임, 매주 레포트와 조별과제 등 무리한 과제

수업 준비가 미흡하십니다. 그날 강의의 학습목표가 있는게아니라 즉석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시를 들 때 정리되지 않은 설명

너무 많은 과제..

숙제검사중심 진행

1. 국시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음. 수업의 대부분을 본인의 박사논문으로 수업하는데, 그 내용은 주역과 그 일부 해석서의 내단사상에 편중되어 있음. 2. 잘 알지 못하는 현대과학/철학 내용을 주관적으로 '분석' 하고 한의학적으로 알 수 있다는 기괴한 주장을 일삼음. 정을 양자역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던가, 기를 엔트로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심지어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이 그 예시임. 사르트르와 카뮈의 실존주의 철학을 한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들은 바 있는데, 본인이 판단컨데 해당 강사는 시지프 신화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음. 3. 과제의 분량이 과도하게 비대함. 예과 2학년의 경우 중간고사 전까지 레포트를 6건 써내야 하였음. 2와도 연결되는 주장인데, 현대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일수록 칭찬의 강도가 강해지기에, 학생들이 이른바 한방 판타지를 집필하기에 급급함. 예를 들어, 본인은 교수가 수업한 대로 엔트로피는 감소하기도 하며 그것이 기 개념이 서양과학에 비해 우월하다는 식의 레포트로 칭찬을 받았음. 4. 기말고사와 별개로 조별과제와 소논문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논문 분량을 20장 내외로 잡았음. 현재 한방생리학 수업은 학생의 조별과제 중간발표를 하는데 1시간 20분여를 소모하며 실질적 강의는 약 20분만 진행되고 있음. 결론을 요약하자면, 국시에 나오는 내용을 수업하지도 않고, 과제는 많은데 과제의 내용은 한방생리학과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교수는 본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하며 유사과학을 신봉하는 것을 넘어서 강의 중 이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마치 신성로마제국과 같은 수업임. 의학도 아니요, 생리학도 아니요, 학문은 더더욱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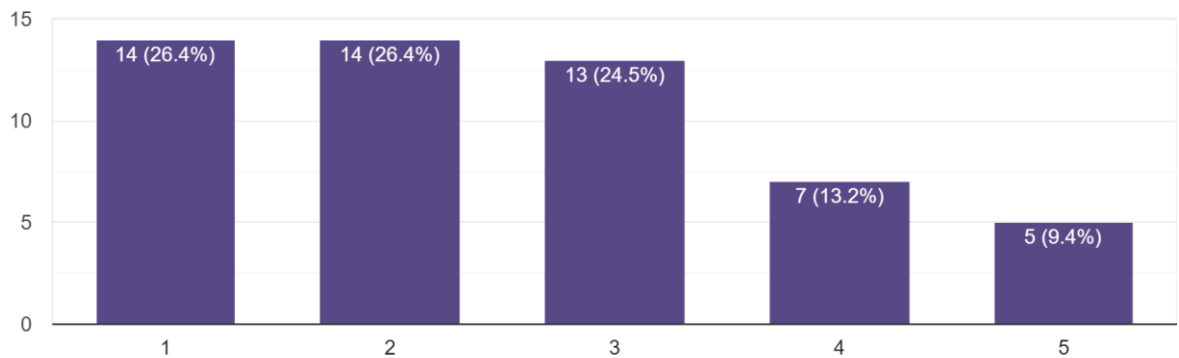
본인이 실력있는 한의사인건 알겠는데.. 학생들의 수준과 수업-과목 간 관련성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2이기에 교과서 등의 기초 내용부터 차근차근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전혀 이해가 안되는 역학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거나 자신이 쓴 논문을 읽으셨다. 무엇보다도 기초도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임상 이야기로만 수업의 절반을 하실 때가

많았다. 내가 본4였다면 분명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 흥미로웠을텐데.. 지금 그걸 들어서는 이해도 안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시니 힘이 빠졌다.
지금도 좋지만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

정리: 체계적이지 못한 수업.

문6. 한의대는 수업시수와 학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한의대는 수업시수와 학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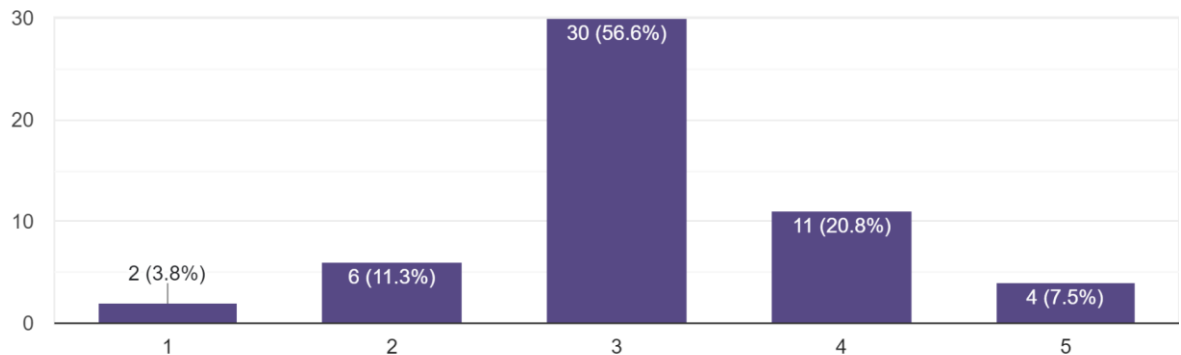


교육과정 협의

문1-1.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3 responses



문2.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응답 표본 : 18명]

.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 필요하다.

양방 교육과정을 늘리고 비합리적인 내용의 비중을 줄여야함

예2의 일부 전공과목을 예1-2학기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 주변 동기들도 예1-2와 예2-1의 갭 차이가 크다고 다들 느끼는데 예1-1과 예2-1 사이를 완충하도록 예1-2에 적당한 강의를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생 한병 합치기

아직 예2라 앞으로의 수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임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원전학, 의철학의 시수와 시험강도가 지나침, 이는 대학교보단 대학원에 적합한 과목임

원전이 축소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늘리고 중요성이 덜한 부분은 줄여야함

예1과 예2의 수업 강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개인적으로 해부학의 경우에는 1학년때부터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원전을 줄이고 예1 한문시수를 늘려야합니다 원전이 너무 어려워서 한문을 더 하다가 배워야 할 듯 합니다

조직학, 발생학, 해부학을 하나로 묶은것 원상복구, 양방과목 구색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 지양.
조직학, 발생학, 미생물학 등 기초 양방과목 강화필요, 해부학 수업 및 실습 비중 증가 필요. 본초
수업도 양과 중요도에 비하여 매우 부족 의철학, 분자와세포의학 등 의미없는 과목 축소필요
원전학 축소, 의철학 전선으로옮김, 전공 f시 유급이 아닌 해당과목재수강
한의학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좋겠다

예과 2학년때 배우는 한문의 일부를 예과1학년 과목으로 배정하여 예과1학년과 2학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보임

교육과정의 방향성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예과 2학년에 걸리는 overload가 그
정도가 지나침. 현재 본초학/원전학/한방생리학/해부학/양방생리학 5가지를 한번에 배우게
되는데, 물론 원전학과 한방생리학 교수의 비합리성을 감안해야 하나 절대적 분량 자체가 많은
것은 사실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상에서 필요한, 해부학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버락치기로
때우고, 유급과 D를 남발하는 원전학 공부에 급급하며 한방생리학과 본초학의 로딩 또한
심각함. 교수진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는 교육과정 내부에서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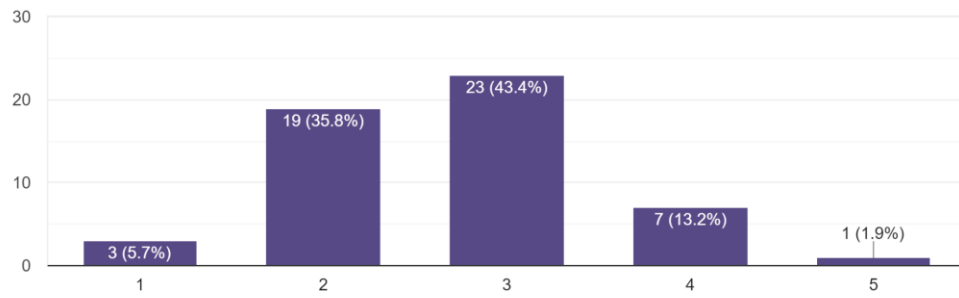
너무 어려운 문제인듯 하다 솔직히 지금의 6년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죽어나가기 좋은, 그리고
한의계가 쇠퇴하기 좋은 환경이다. 참된 의료인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학기시간에 비해 공부해야할 양이 너무 많다. 참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좌절하거나,
시험만 겨우 통과할 정도로 대충 공부하고 진급하는 경우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대충으로만 공부하는 문화가 생기면 한의사들의 실력 부족은 당연한 것이고, 한의업계는 결국
쇠퇴할 것이다. 앞선 페이지의 학점-수업시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있는데, 실상 차분히
참공부를 해나가려면 한의대 교육과정이 7-8년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건 또 너무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실현가능성도 없어보인다.. 그래서 나도 너무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한방생리학과 원전학 같은 과목들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도 예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듯 하다. 이런 과목들을 체계화시켜 학생들에게 잘
정리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 예과 2학년에 편중되는 과목 밸런스 조정.

문3. KAS 2022에서는 한방생리학 과목이 예과 2학년으로 이전되고, 본초학의
시수가 1시간 단축됩니다. 이러한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KAS 2022에서는 한방생리학 과목이 예과 2학년으로 이전되고, 본초학의 시수가 1시간 단축됩니다.
이러한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 responses



문4. KAS 2022는 한의학에 대한 임상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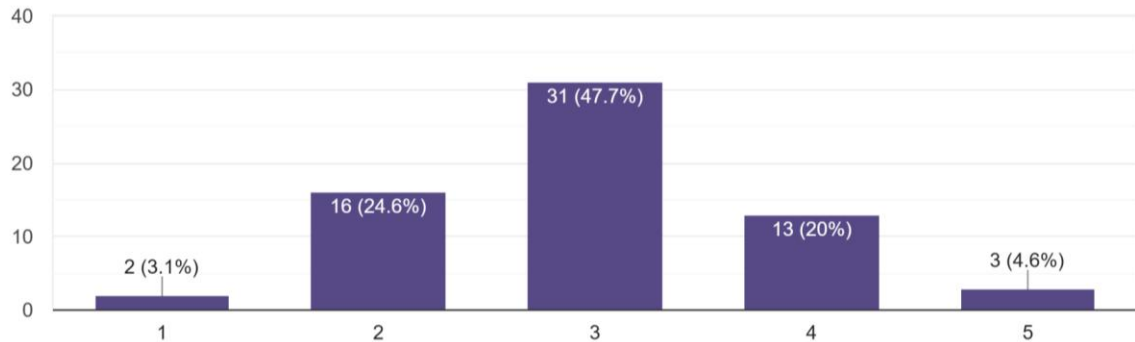
<누락>

2023 본과 1학년

[교육과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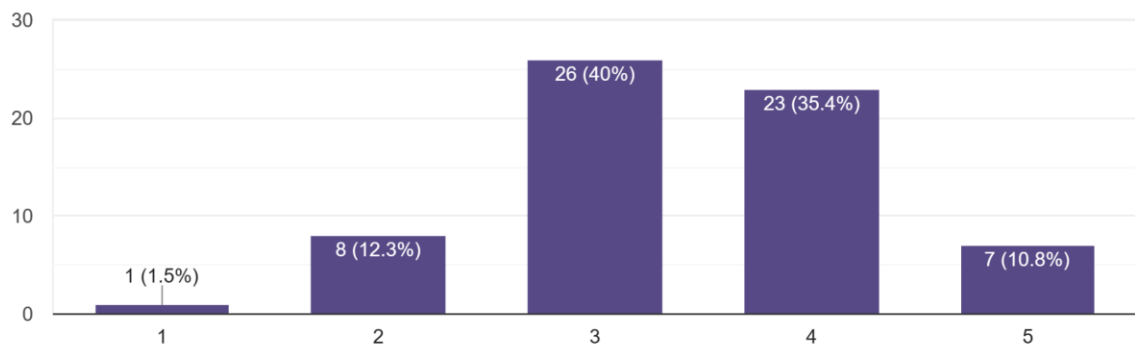
1. 본과 1학년 과목들의 구체적인 수업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응답 6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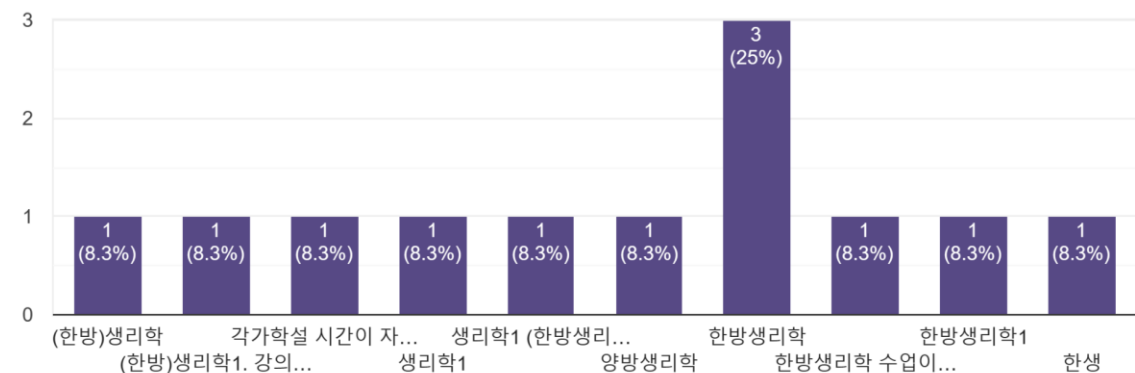
2-1. 본과 1학년 과목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응답 6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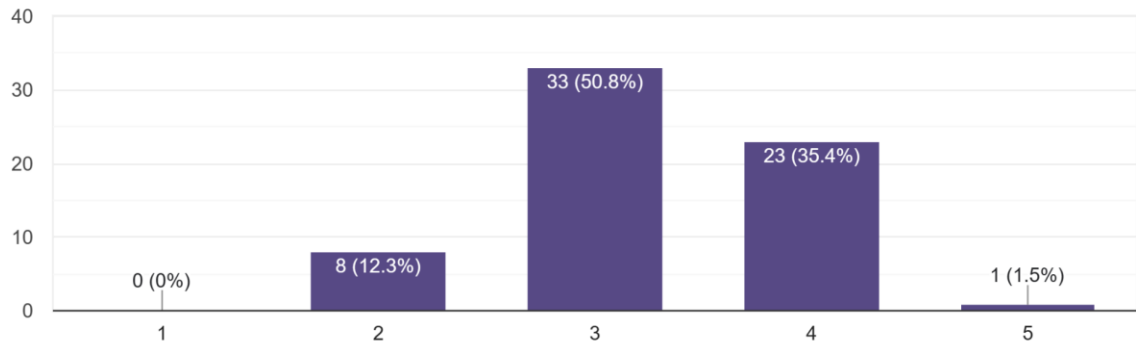
2-2. 어느 과목이 강의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에서 1이나 2를 고른 경우)

응답 12개



3-1.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과목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응답 65개



3-2. 어느 과목 간 중복이 가장 심합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에서 4~5를 고른 경우)

해부-조직 / 조직, 해부 / 해부학-조직학 / 해부조직

조직학-해부학-양방생리학

조직학-양방생리학

양생 생화학 / 양방생리학-생화학 / 생화학 양생

한문-원전학 / 한문-원전학 / 한문-원전학

한문원전한생

원전-한생-경혈총론

원전학 - 한문 - 한의학한문

원전학

한생-경혈

해부학-경혈학총론

생리학 본초학

본초학, 같은 개념이 많이 출현

원전학-생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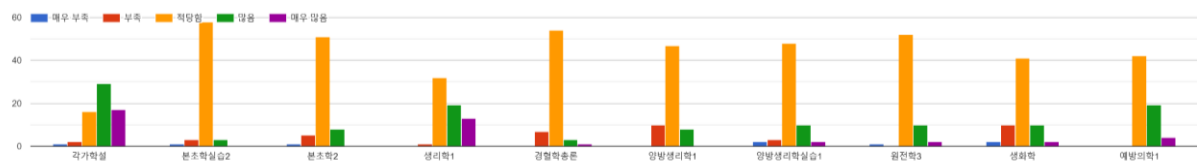
생리학, 본초학, 경혈학 등 / 본초학이나 경혈학 등은 최소한 생리학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수업인 듯한데 생리학이 나중에 편성되어 수업을 들을 때 불편한 느낌이 있음

수업 내용이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사(각가학설/상한론/온병학), 원전(한문/경서강독/한의학학문) 수업이 예1 때부터 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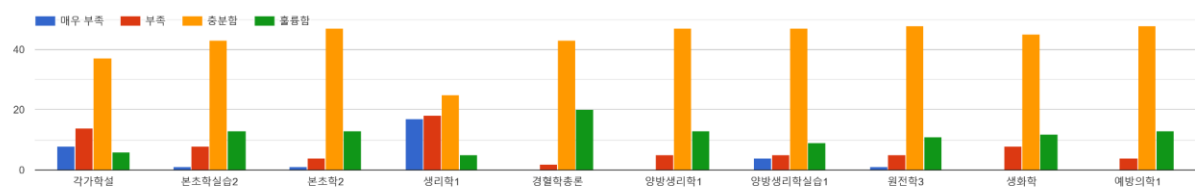
정리: 해부학-조직학-양방생리학, 원전학-한방생리학 등.

[교육과정2]

1. 다음 각 과목의 한 주당 수업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량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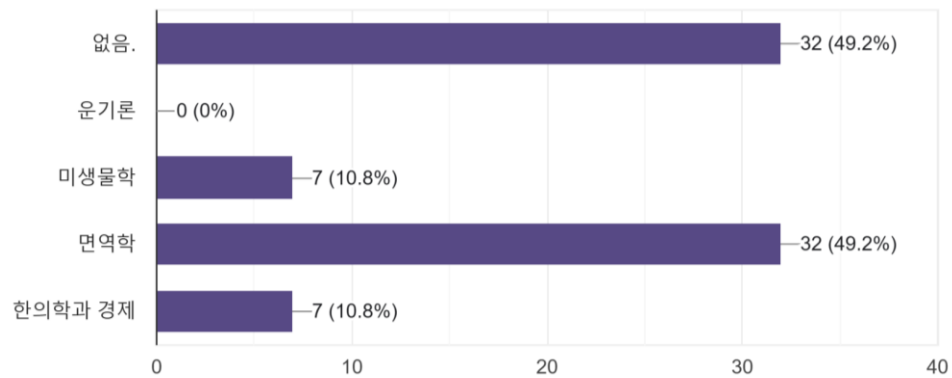


2. 다음 각 과목의 강의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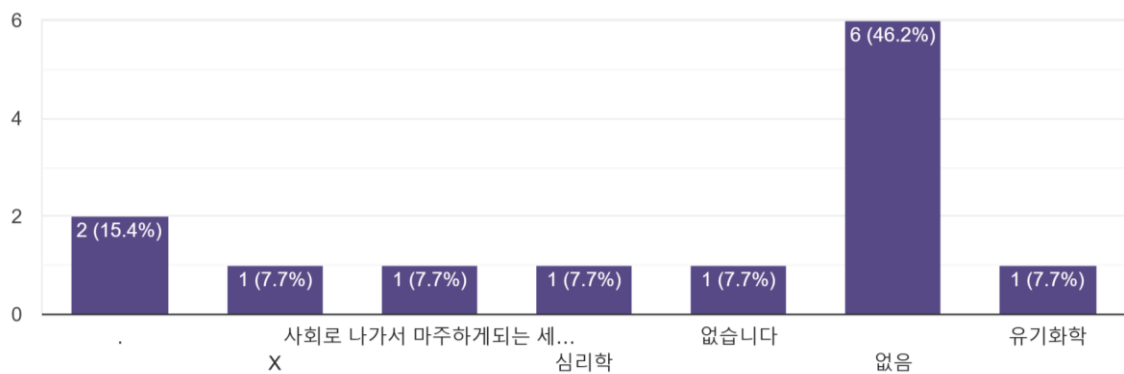
3. 전선 중 전필이 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 65개



4. 개설되었으면 하는 전선 과목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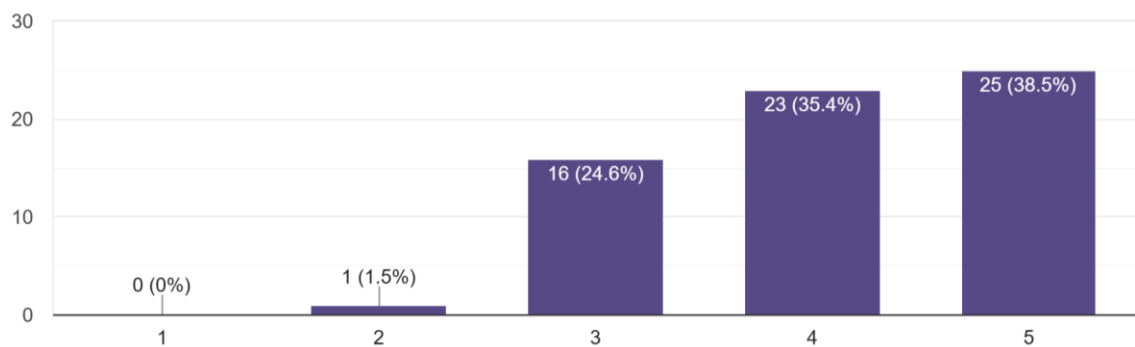
응답 13개



[교육과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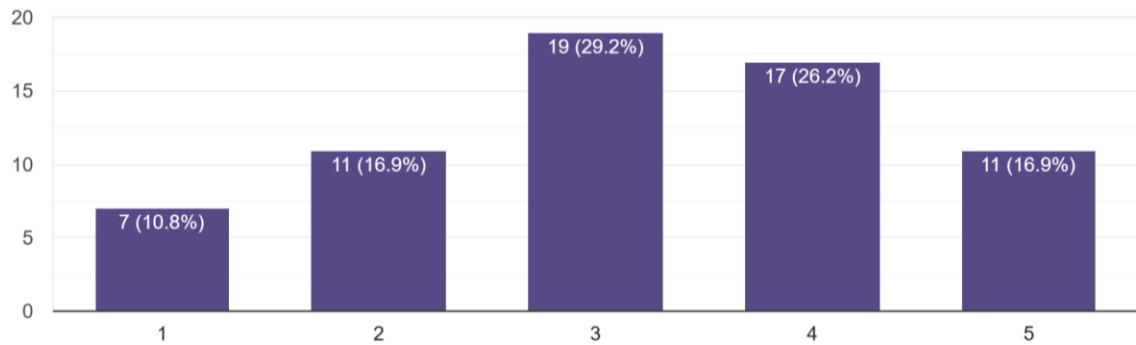
1. 경혈학총론은 분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분반 간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6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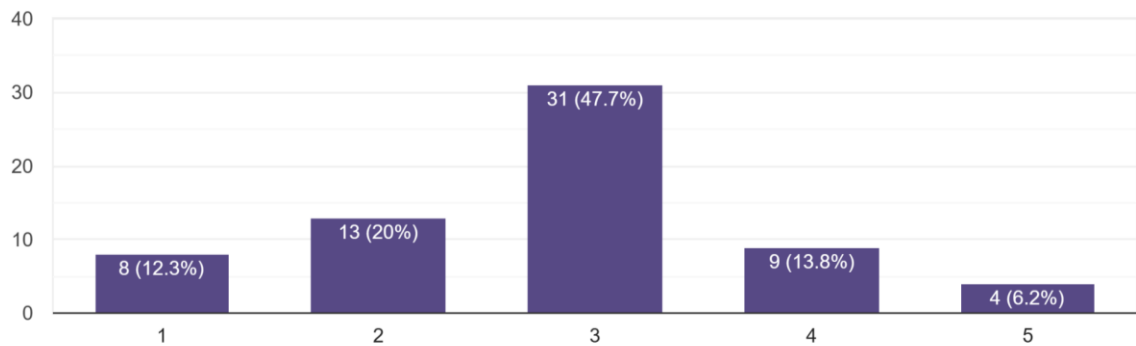
2. 현재 장부총론 시험은 통암기가 아닌 빈칸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6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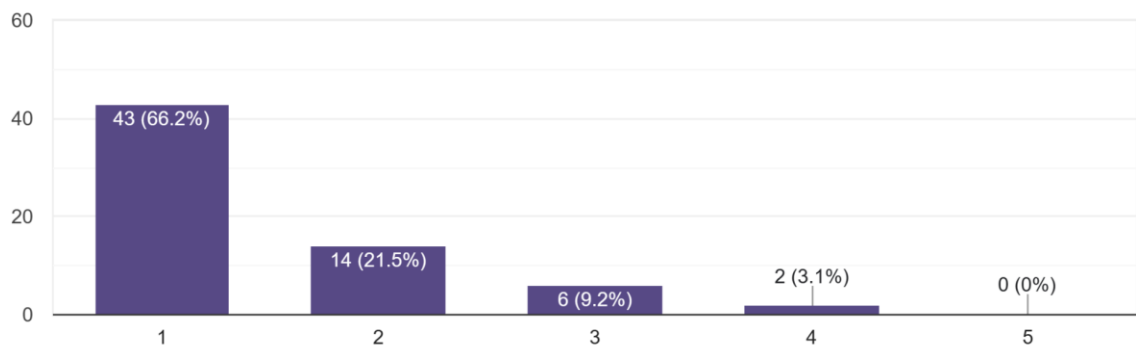
3. 각가학설이 특정 시대에 수업 내용이 국한되어 있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65개



4. 현재 생리학1은 외부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65개



5. 외부강사의 수업 진행 방식 중 지양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과제 / 과도한과제 / 과제가 너무 많음

지나친 압박 / 과도한 성적 압박 및 과제

과도한 레포트와 과제

과도한 과제와 불명확한 수업 목적, 수업 내용

과도한 과제 및 특정 학생에게 과제부담 집중 문제

수업 시수가 너무 많고 과제가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많다

무분별한 과제와 맥락 없는 수업 진행.

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움

갑작스러운 강제 발표

과제에 치중한 수업을 지양하였으면 좋겠다

과도한 과제로 인해 과제 퀄리티가 너무 낮아지고 부담이 큼니다. 과도한 과제는 지양해줬으면 합니다.

과제에 대한 채점 기준의 명확한 설명 부족, 본인의 주관을 배제한 교재를 바탕으로 한 강의, 강의 중 삼천포 및TMI

한학기 수업 진행방식(과제, 조별활동, 발표 등)과 또한 시험 채점방식, 배점방식 및 재시험 기준이 불명확하며, 사전공지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고 부담스럽다.

기존 교수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 무리한 과제나 발표, 유급 협박 등등

학점으로 학생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있어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담 지양

생리학에 맞지 않는 수업내용으로 2시간을 꽉채울 때

논문 읽고 발표 시키기

수업내용이 짜임새있지않고 책읽기에 국한됨

수업의 체계가 없음

너무 비논리적이고, 수업내용이 맥락이 없다

.수업의 대부분을 학생에게 전가시키는 느낌. 무의미한 본문 읽게 시키기, 학생에게 다짜고짜 피피티 만들어오게 시켜서 학생 발표 시키기 등

제대로된 수업계획 없이 수업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없는 가르침. 다음 학기나 내년에 배워야 할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알 수 없음.

배우는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교육입니다.

기준없는 수업. 무분별한 자유도

의식의 흐름대로 강의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교수력이 있는 강사분이 와야한다. 자신이 아는 바를 뽐내기 보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특정 체계 없이 즉흥적으로 수업을 하는 행위 -적절한 단계 없이 과도한 과제를 내는 행위
명확한 수업 듣고 싶습니다.

수업 내용이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수업계획서에 맞춰서 체계적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존 교수님들과 강의력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교수들 수업 하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만을 설명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업하셨습니다. 시험 문제도 본인이 가르친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 학생들에게 미리 문제를 공지하여서 겨우 답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 공부는 철저히 본인 혼자 하는 공부임을 잘 알고 있으나 한의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관찰면을 잘 설명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방식이 형편없고 자신의 임상 경험을 무지성으로 전달하며, 이러한 강사를 기용한 한의과대학에 불만이 많음. 학비를 내고 다니는 학교에서 이러한 강사를 검증 없이 중요한 과목에 배치한 것이 매우 실망스러움

막무가내식 유급. 강의계획서 미준수. 교과서 무시. 부작위에 의한 교육권 침해(수업을 학생이 대체, 교수는 직무유기)

먼저 초임인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대한 자신의 방법론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과제 역시 불분명하거나 정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여러 방식들을 모두 하려고 합니다. 또한 외부 강사이다 보니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나 수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수행하는 방식은 적절한 수업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강사들은 평가 기준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어정쩡한 소문 기반으로 알게 되거나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학업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수업이나 과제 등도 강의계획서에서 제시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과학적인 내용이 많음

...또, 국시과목의 경우 국시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부분은 자율적으로 학습하기를 강요하는 것

무협지식의 한의학 설명을 멈춰야한다

지나친 유급

중요한 과목을 왜 외부 강사가 하죠?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무리한 탐구를 요구하십니다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수업

무엇에 대해 배우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한방생리학 시간에 배웠죠? 하는 내용들을 배운 적이 없고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 추후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우왕좌왕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함

강의계획서에 따라 설명해줄 내용을 설명해주셨으면 한다. (알아서 읽어보라고 하지 말으셨으면..)

강의의 핵심이 다소 모호함

교수 개인의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외부 강연 등이 아니라 한의과대학의 정규 강의로서는 본인 의견을 강하게 부각하며 정규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생략하는 등의 수업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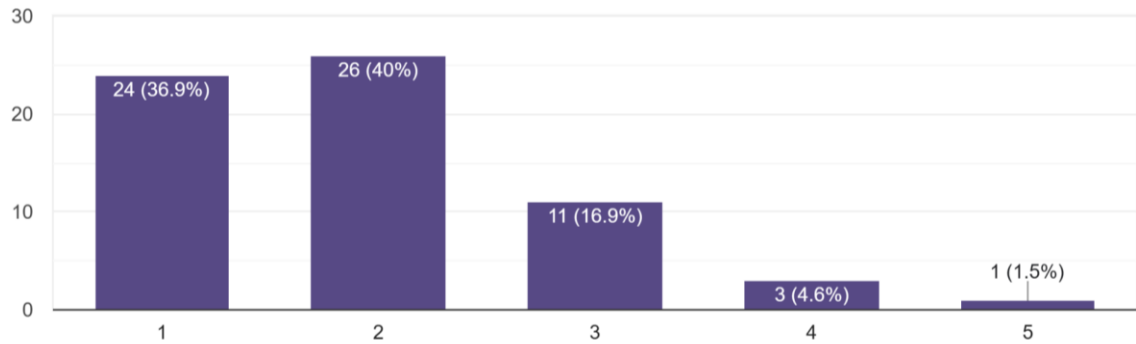
없음.

본1은 생리학 외부강사님이 아닙니다

정리: 무분별한 과제, 체계적이지 못한 수업,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식.

6. 한의대는 수업시수와 학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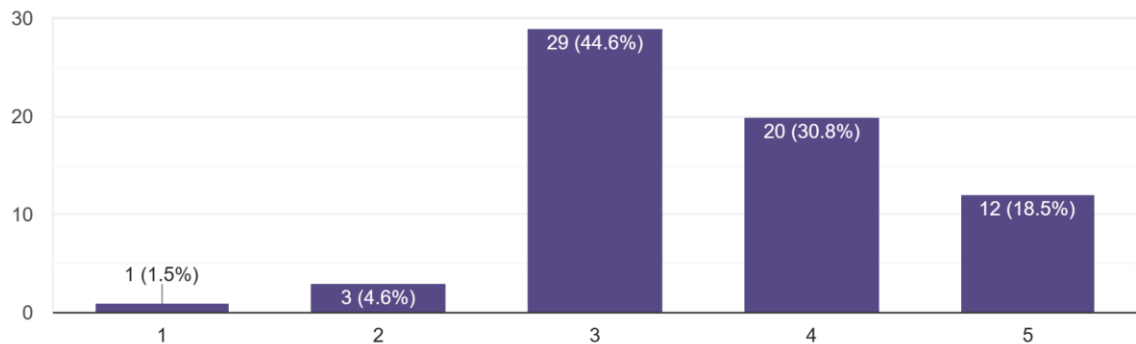
응답 65개



[교육과정 협의]

1.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65개



2.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원전, 경혈, 본초를 조금더 강화하고 동시에 임상도 강화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밑에 후배들에게는 임상과 이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론을 위한 이론공부가 아닌 임상에 맞는 교육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자적인 접근보다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에 유용하게 쓰이는 내용들에 대한 과목들이 추가되고 양방과 결합되어 공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실습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과 원전학, 의학사나各家學설 같은 기초과목을 줄이고 임상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했으면 합니다.

실습과 임상효용성을 고려 / 실습을 늘리기

현대의학을 강화하고 한의학 기초와 임상을 합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양의학 비율을 늘려야 함 / 양의학 위주 교육 / 현대의학 위주

한의학만의 갈라파고스적 과목 축소,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공통 과목 확대

현대시대에 한의학이 적응하려면 양방과목을 좀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학의 요구에 맞게 시수 수정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예과 때 배워야함

의미없는 실습 시간을 좀 줄이고, 한방 및 양방 기초 과목들(생리 병리학 등)이 좀 더 일찍 이루어져야 경혈학, 본초학 등의 내용 이해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현재는 경혈학과 본초학이 생리 병리학과 동시에 또는 생리 병리학보다 먼저 학습을 해야 해서, 경혈학이나 본초학 과목 교수님들이 생리 병리학적 내용 설명에 시간을 잡아먹히는 감이 있음.

기초과목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 시간 뿐만 아니라 범위도 줄여야 한다. 시간만 줄고 범위는 그대로 나가려는 교수님들이 많다.

이화학적 접근의 과목이 늘어나야. 교수가 강의계획서와 학칙에 구속되어야(무소불위의 권력X, 규칙 초월X).

본초학의 경우 교수님에 따라 수업방식과 관점이 상이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는 생리병리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도 있지만, 본초학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초학을 방제학 앞뒤로 놓는 방식으로 수업하면 학생들에게 더 적절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도 과정이지만, 수업 자체의 내용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전달방식이 납득 가능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

생리학 시수가 줄어야 한다

중요한 것들을 더 배울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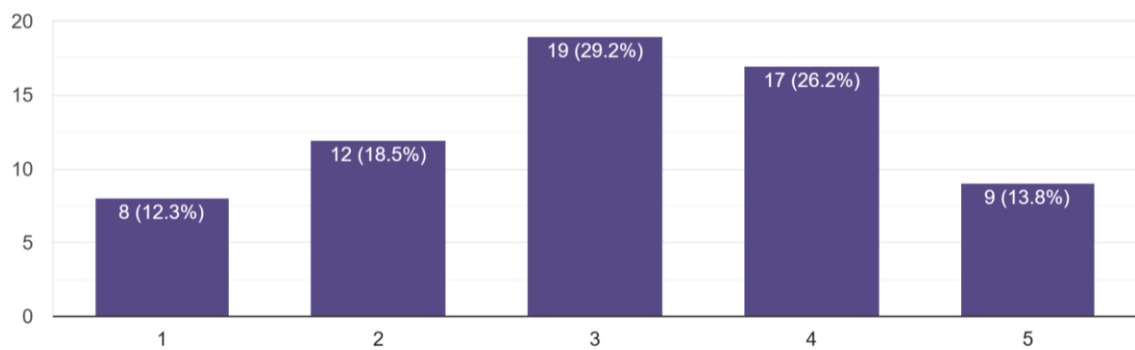
안해도된다

..

정리: 임상형 및 현대의학 교육과정 증편. / 교육과정 체계의 개편도 중요하나, 수업 하나하나의 진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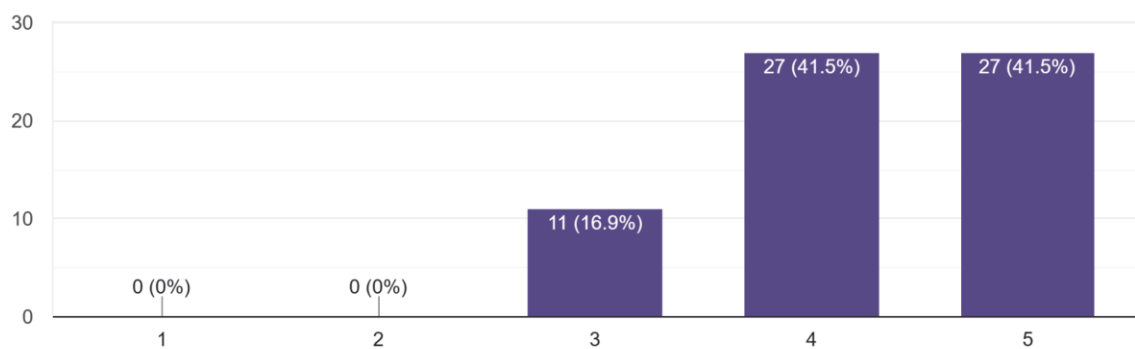
3. KAS 2022에서는 한방생리학 과목이 예과 2학년으로 이전되고, 본초학의 시수가 1시간 단축됩니다. 이러한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65개



4. KAS 2022는 한의학에 대한 임상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6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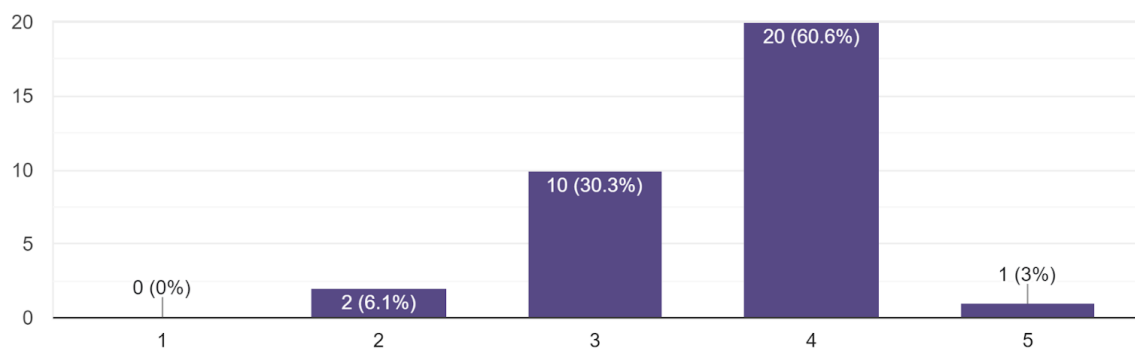


2023 본과 2학년

교육과정 1

2-1. 본과 2학년 과목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응답 3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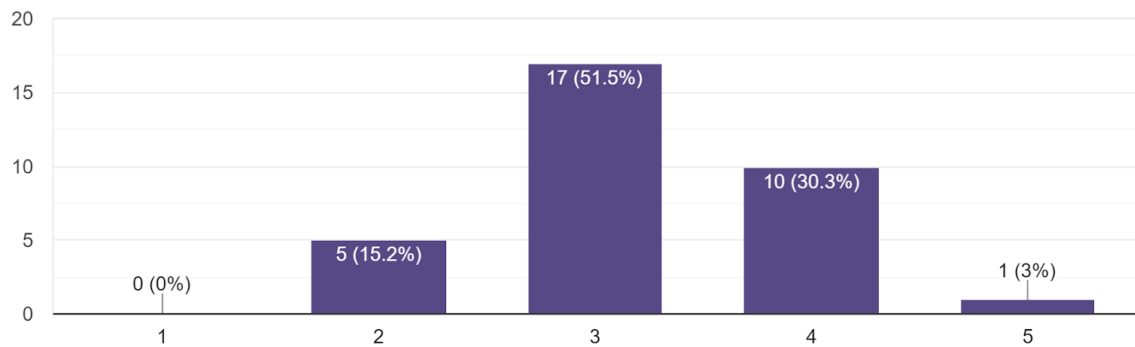
2-2. 어느 과목이 강의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에서 1이나 2를 고른 경우)

양방병리학

방제학 실습, 병리학 실습 / 실습과목을 보면 배우는 지식의 양이 적고 무엇을 가르치는 지 모르겠다. 병리학실습의 경우 한방병리가 진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학습이필요할 것 같은데 뭐하는지 모르겠다

3-1.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과목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응답 33개



3-2. 어느 과목 간 중복이 가장 심합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에서 4~5를 고른 경우)

한문-원전학

원전, 각가학설, 상한론 계열 쪽

한의학한문-원전학

일반생물학-양방생리학

방제학과 병리학

다른과목은 아니지만 방제학 임00 교수님 인강과 방제학 현강 교수님들 내용이 중복됩니다

본초-방제

과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알지 못하면 2,3학년 때 공부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것을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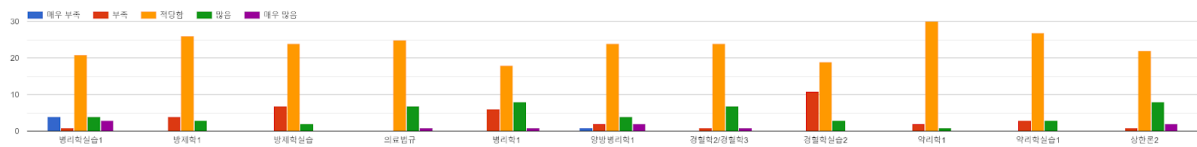
해부학-조직학-양방병리학

양방병리학-양방병리학실습, 방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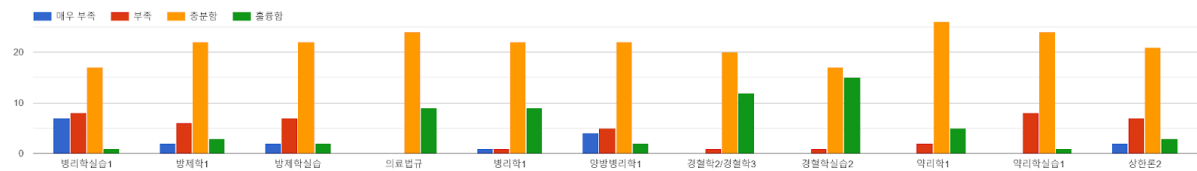
정리: 양방병리학-병리학실습, 본초학-방제학, 한의학한문-원전학 등.

교육과정2

1. 다음 각 과목의 한 주당 수업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량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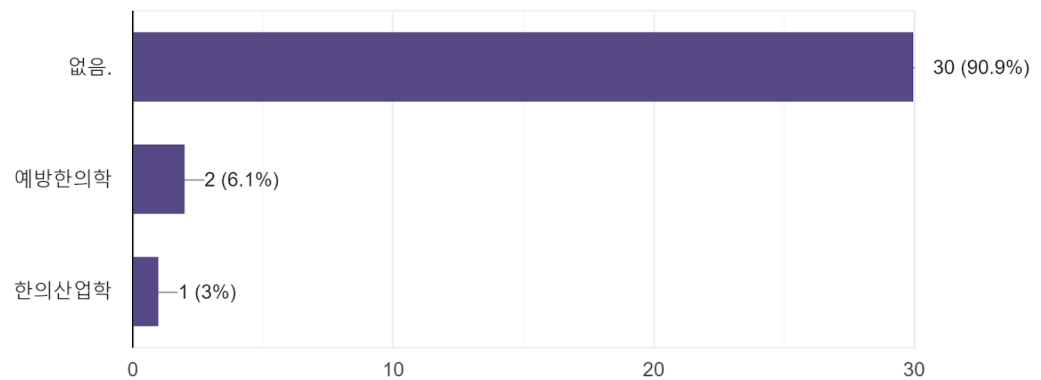


2. 다음 각 과목의 강의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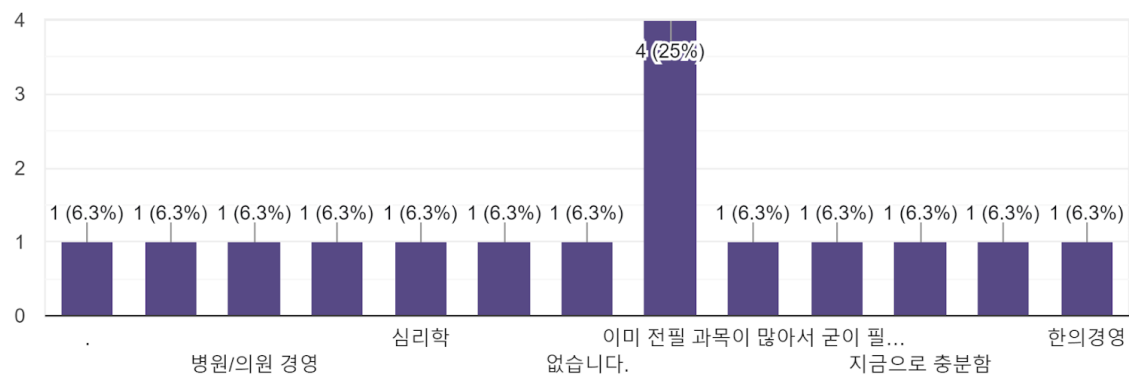
3. 전선 중 전필이 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 33개



4. 개설되었으면 하는 전선 과목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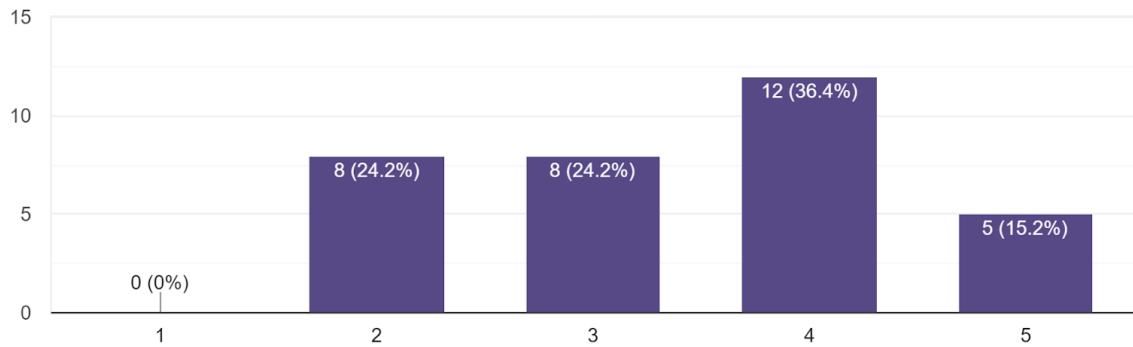
응답 16개



교육과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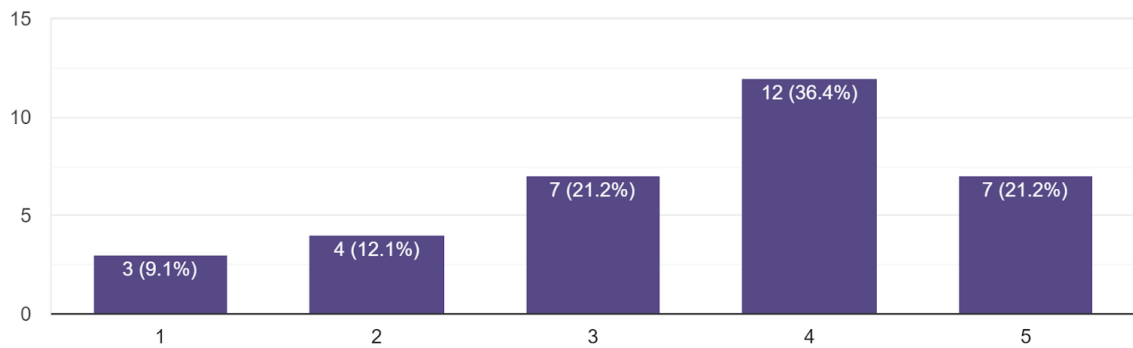
1. 경찰학 과목은 분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분반 간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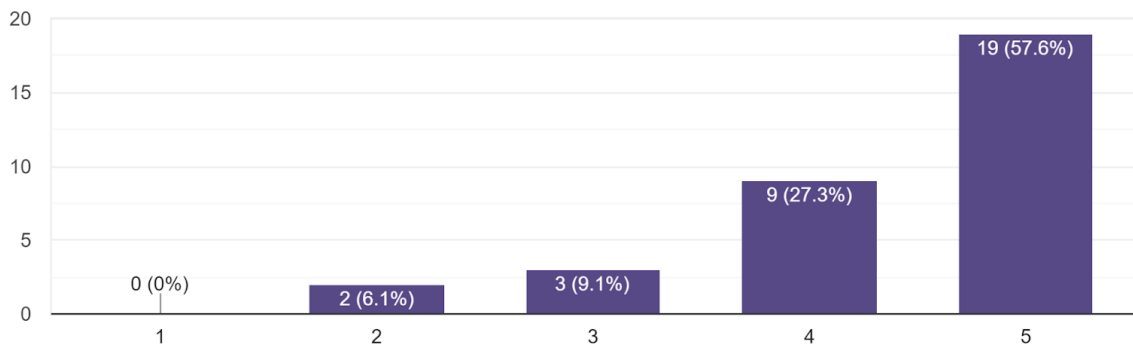
2. 현재 장부총론 시험은 통암기가 아닌 빈칸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33개



3. 현재 병리학1은 외부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33개



4. 외부강사의 수업 진행 방식 중 지양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없음

.

병증보다 병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함.

수업 중 이상한 농담을 간혹 함

현재는 그다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임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위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점시 느슨함

현재 담당 교수님이 잘 해주고 계심

아직 임상 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안 좋게 하는 것.

과도한 과제

한 번 수업하실 때 수업하시는 시간이 길다.(쉬는시간이 늦게 있음)

현재 강의는 매우 좋습니다

초반엔 조금 원활하지 않았지만 익숙해지니 상당히 좋게 느껴짐

특별히 없다. 본2 병리학은 괜찮은데, 본1예2 생리학은 학생들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없습니다.

진단의 내용이 섞여 있어서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고 시험범위가 무척 많다

좀 더 구체적인 학습자료(PPT)를 만들어서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통해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간체자 번역본이 없다. 해석본이 있는 책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간자체 교재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적응하기 어렵다.

임상적인 내용도 좋지만 정규적인 수업 내용을 위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앞 전에 맡고 있던 교수와 전혀 다른 방식의 수업. 특히 병리학은 연속성을 띄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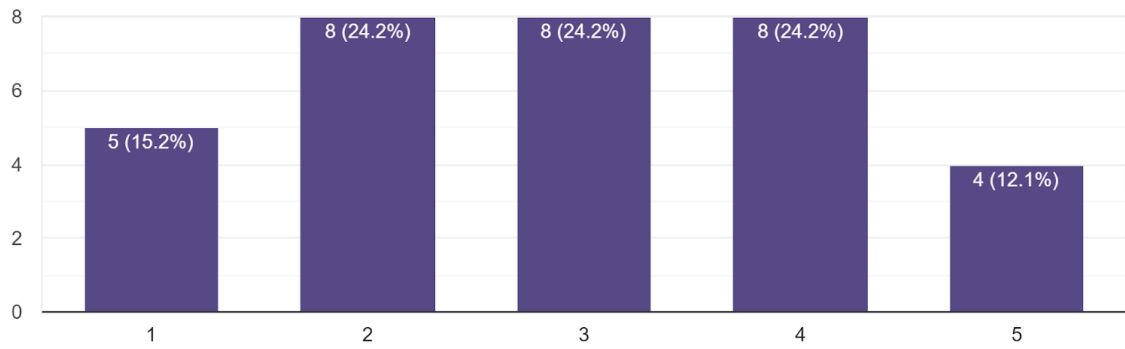
중국에서 쓰이는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는 점

현재 병리학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정리: 병리학 교육자료(PPT 등) 제작 필요. (2023 본2-1 병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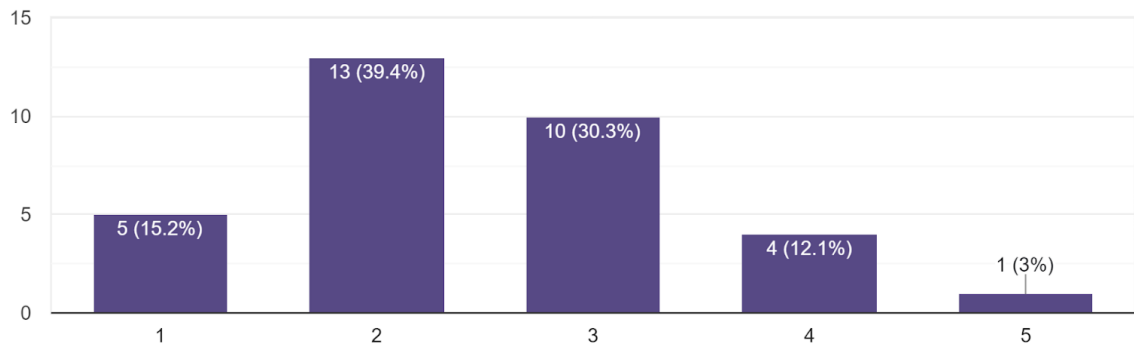
5. 기존 교수의 병리학/방제학 수업의 중복 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33개



6. 한의대는 수업시수와 학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3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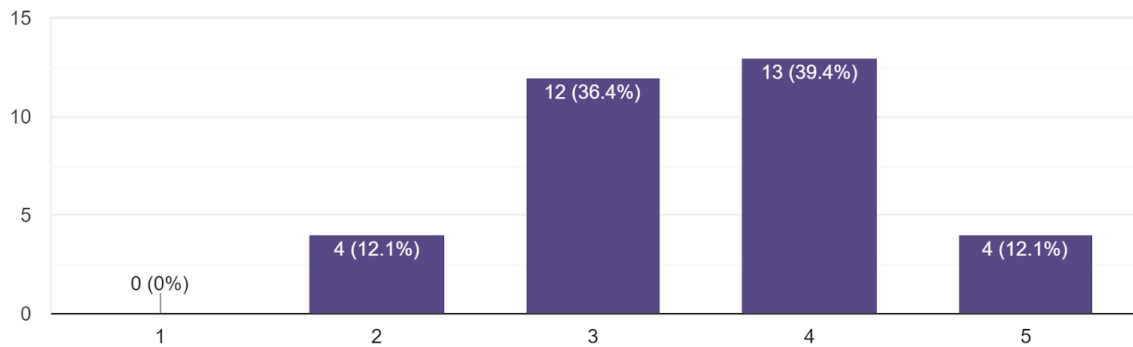


교육과정 협의

2.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3개



2.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이런 건 한의사들한테 조사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지만 생리 / 병리 부분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부학 관련 강의가 한의학과 교과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초 경혈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

한문의존도가 너무 높은편이다. 기존의 교수님들이 공부를 한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문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본과 2학년까지는 한의학서적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중요하고 배울만한 서적을 교수님들께서 추천해주시고 그걸 함께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고싶다.

없음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술기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없는 기초과목을 정리하고 임상 및 실습 시간을 늘려야하 한다고 생각

예과 1학년 때 한의학 개론(현재 과목명이 바뀐것으로 앎)의 수업 시간이 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개론 시간에 한의학의 기초, 역사 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야 그 후에 배우는 수업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학습하면서 훗날 임상에서 더 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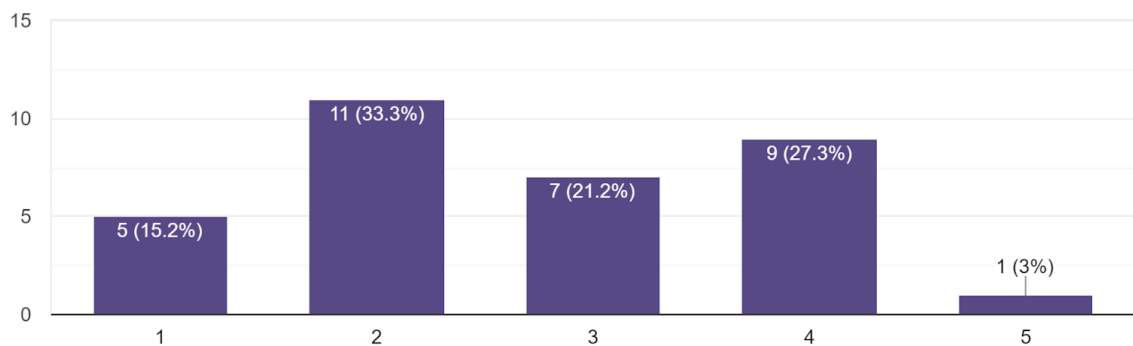
본과 1학년때부터 임상 과목이나 진단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부학실습을 고학년으로 넘겨서 경혈학이나 침구학을 배운 후에 시행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임상과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혼에서 T흥미가 너무 떨어진다.
 추후 양방과 협진을 대비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 좋을 듯 하다. 해부학, 진단 관련(초음파 등)
 확대
 임상 실습에 대한 실질적인 현실성, 타당성 고려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본3에서 배우는 과목을 미리 본1,2에게 분배했으면 좋겠음.

정리: 임상형 실습 과목 증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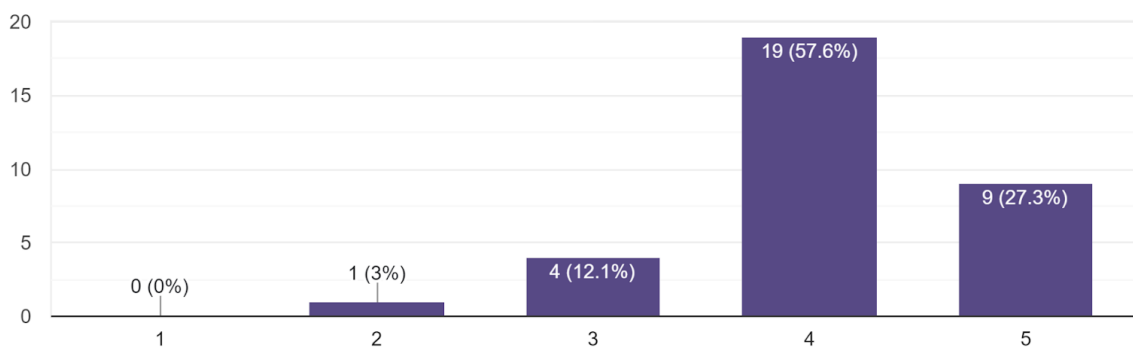
3. KAS 2022에서는 한방생리학 과목이 예과 2학년으로 이전되고, 본초학의 시수가 1시간 단축됩니다.
 이러한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33개



4. KAS 2022는 한의학에 대한 임상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33개





총정리

예과 1학년 (예1)

대다수 학생이 수업 목표를 인지하고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 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중복 과목으로는 한의학기초이론과 한의학개론이 지적되었습니다. 인문한의학과 일반화학은 시수가 많다고 느껴지며, 의학용어 및 일반화학의 지식 성취도는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인문한의학의 P/F 평가 전환을 희망하며, 약 2/3가 한의학 용어 및 문장 풀이 과목 재도입을 원합니다. 또한, 한의학 흥미 유발 과목 추가 요구가 높습니다. KAS 2022를 통한 한의학의 임상적 접근성 강화 방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과 2학년 (예2)

학생들은 수업 목표를 인지하고 강의계획서 이행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한의학기초이론-한의학개론과 원전학-의철학의 중복이 일부 보고되었습니다. 한방생리학, 원전학, 의철학은 시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본초학총론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방생리학은 지식 성취도 달성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인체구조와기능과 의철학에 대한 인식이 좋으며, 분자와세포의학은 2/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방생리학1의 외부 강사 수업 진행에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주된 이유는 체계성 부족이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 관련하여 시수-학점 통합과 예과 2학년 과목 밸런스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과 1학년 (본1)

수업 목표 인지와 강의계획서 이행은 긍정적이거나, 한방생리학1의 계획서 미이행이 지적되었습니다. 중복 과목으로는 해부학-조직학-양방생리학 및 원전학-한방생리학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각가학설, 한방생리학, 예방의학은 시수가 많았으며, 이 중 각가학설과 한방생리학은 지식 성취도 달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면역학은 절반의 학생이 전공필수과목 전환을 희망했습니다. 경혈학은 분반 간 난이도 차이가 크다는 인식이 많았고, 장부총론 시험이 빈칸 형식인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방생리학 외부 강사 수업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무분별한 과제, 비체계적 수업, 전문성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학생들은 시수-학점 미통합에 부정적이었고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임상형

및 현대의학 교육과정 증편 등 KAS 2022 교육과정 대개 개편에 대다수 찬성하며, 개별 수업의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본과 2학년 (본2)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 이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중복 과목으로는 양방병리학-병리학실습, 본초학-방제학, 한의학한문-원전학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한방병리학과 상한론은 시수가 많다고 느껴졌으며, 병리학실습, 방제학실습, 약리학실습은 지식 습득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혈학은 절반의 학생이 분반 간 난이도 차이가 크다고 인식했고, 장부총론 시험이 빈칸 형식인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방병리학 외부 강사 수업에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병리학 교육자료(PPT 등)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수-학점 미통합에 부정적이었으며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임상형 실습 증편 등 KAS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대다수 찬성합니다.